금주의 법구–〈수행본기경〉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1월 8일)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윤석이의 손을 살며시 쥔 채 전문지도사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빨리 낫게 스님이 기도할게”

진우 스님, 난치병 어린이 찾아 쾌유 발원

12월 11일 강북장애인복지관서
환아들 위로 · 요리교실 체험해
1시간가량 머물며 임직원 격려
“복지관 종사자 역할에 감격해”
치료비 2억5000만원 지원키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야, 잘 찌르네? 너 찌르기 선수구나 선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주먹밥을 만들며 요리교실을 함께하던 보현(7)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처음 보는 스님이 건넨 낯선 칭찬이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던 모양이다. 작고 동그랗게 만든 주먹밥에 고작 포크 하나 꽂는 일이 무슨 대수일까 싶지만 심장판막증을 겪으며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던 보현이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자, 너 먼저 하나 먹고 이제 스님한테도 하나 먹여줘봐.”

“응.”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현이지만 스님의 부탁에는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움직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 진우 스님의 입에 넣어주는 보현이. 힘이 없어 첫 번째 주먹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재도전 끝에 성공하며 스님과 보현이의 함박웃음이 터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1시간가량 환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비행을 펼쳤다. 올해 진행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제23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행사 이후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은 자리다. 복지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복지관 장애인불자회인 ‘바라밀’ 회원들이 스님을 반겼다. 스님이 펴낸 〈제발, 걱정하지 마라〉에 사인을 부탁한 김인애 씨와 직접 만든 마카롱을 선물로 준비한 바라밀 회원들이다.

짧은 환영식에 이어 진우 스님이 들른 곳은 복지관 본관에 마련된 운동발달실.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윤석(7)이가 치료를 받는 곳이다. 윤석이의 어머니는 2007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안희선 씨. 지난 4월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환아 치료비 마련 행사에서 발원문을 낭독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윤석이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몸에 연결한 관으로 대부분의 영양분을 섭취한다. 윤석이의 몸이 굳지 않도록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전문지도사의 치료를 가만히 지켜보던 진우 스님이 윤석이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말했다.

“스님이 왔다 가니까 빨리 나을 수 있을 거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관세음보살님의 이적이 이뤄지기를 기도할게.”

윤석이 치료과정을 지켜본 진우 스님은 자리를 옮겨 자립생활지원실에서 보현이와 요리교실을 함께했다. 보현이는 생후 한 달째부터 서울 미아동에 위치한 수안사에서 지내고 있다. 친모가 아이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아 수안사 묘담 스님이 엄마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절에서 자란 보현이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처음 만난 진우 스님이 조금은 낯선지 눈을 마주치지 못하다가도 장난기 섞인 스님의 말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스님도 손주벌 되는 보현이가 귀여운 듯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요리교실 이후에는 회의실에서 치료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모연행사로 모금한 기금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복지관 임직원 여러분이 대신하고 있어 감격스럽다”며 “성불과 자비의 종교인 불교에서 자비가 없이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종단도 보다 더 어려운 복지 분야에 신경 써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전달식에 참석한 환아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선물을 나눠줬다. 거동이 가능한 보현이에게는 킥보드,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윤석이에게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주어졌다. 이 밖에도 청소년인 김민성 군과 문혜린 양에게 각각 선물을 전달했다.

계호 스님 “부처님 가르침 전하겠습니다”

제35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종정상 수상… 포교기금 전달
진우 스님 “자승 대종사 유지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어가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사진 오른쪽)이 포교대상 종정상을 수상하고 진우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제35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2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5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포교대상 대상으로 선정된 계호 스님은 수행과 문화로 전법하는 진관사 회주로 산사음악회, 산사음식시연회, 국행수륙재 등 문화행사와 기도, 수행, 명상,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활동에 진력해왔다.

계호 스님은 “원력과 공심으로 정진하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됐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받는 상”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 잘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호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포교기금 1000만원을 전달해 포교대상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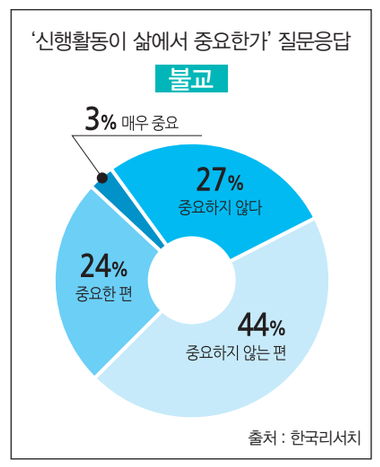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총무원장 표창인 공로상은 민주평화통일 대통령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화봉 스님,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성 스님,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중신회 ·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우현의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장이 수상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해동 스님, 동련광주지부회장 지장 스님,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선 국제선센터 법당봉사팀장,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은 포교원장 표창인 원력상을 받았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누구보다 전법을 강조하고 전법의 바람을 일으킨 자승 대종사의 유훈으로 결집된 원력이 바로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이야말로 물질만능 풍조로 인해 쇠락해가는 정신문화 회복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 천년의 불교중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9대 포교원도 전법을 통한 간절한 포교만이 살길임을 절실히 여겨 ‘GO!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호감도 높은 불교, 신행 · 결속력은 ‘낙제점’

한국리서치 종교인식조사서
불교, 종교 호감도 1위 차지
불자 27%만 “불교, 삶에 중요”
“핵심 신도 양성 방안 찾아야”



한국 주요 5대 종교 중 불교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종교생활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교신자는 27%로, 정체성과 내부 결속력은 타종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12월 6일과 12월 13일 ‘2023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2023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 100점 만점 중 52.5점으로 한국 주요 종교 중 가장 높았다. 가톨릭은 51.3점이었고 개신교는 33.3점, 원불교는 29.4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불교에 대해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가졌고, 매우 높은 호감도를 가진 사람은 23%가량이다.

대외적인 호감도가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교지만, 신행활동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먼저, 한국리서치가 1월부터 11월까지 22번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구는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가톨릭이 11%였다. ‘종교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달한다.

종교활동 참여율은 불교가 제일 낮았다. 불자 중 2%만이 매주 법회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한 달에 2~3번 참여한다는 불자는 6%, 한 달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불자는 19%였다. 한 달에 한 번도 법회에 가지 않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불자는 71%에 달했다. 반면, 개신교인 중 54%는 매주 교회에 가고, 가톨릭 신자 중 27%는 매주 미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종교활동 참여율로 신앙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없지만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불자들의 비율이 타종교에 비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실제 개신교인 중 70%가 자신의 신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던 반면, “불교 신행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자는 27%에 머물렀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불자는 44%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불자도 27%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심 신도 양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적 불교’를 향유하고 있는 대중을 어떻게 ‘종교적 불교’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7%가 나온 것은 법회와 신도교육이 그나마 지속되며 올라온 것”이라면서도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응집할 결속력이 없는 상태다. 이제는 세대전승과 시대에 맞는 신도교육, 봉사 등을 통해 핵심 신도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다음 호는 2024년 신년특집호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천년을 세우다’ 기틀 마련…불교중흥 기대

2023 종단 결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등
조계종 주요 종책 사업에 탄력
종단 직영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천태 · 태고종 총무원장 교체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

2023년 한국불교는 장자종단 조계종의 제37대 집행부가 주요 종책으로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의 기틀을 마련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37대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모시는 것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명상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종단적 불사 ‘천년을 세우다’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교구본사와 주요사찰, 신도 · 포교단체, 개인 후원이 이뤄지면서 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연해 재정을 뒷받침했다.

불상의 코끝부터 지면 바위 거리가 5㎝밖에 되지 않는 경주 열암곡 마애불은 안정성과 종교적 가치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입불과 현 상태 보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명상지도자들의 모임과 연구위원회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조계종 미래본부가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해 종단 표준 명상법 개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종단차원의 명상센터 건립 또한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직영으로 전환한 파라밀요양병원이 지난 5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것은 승려노후복지 확대의 결실이었다. 조계종 스님들이 우선 입원 대상자긴 하지만 기반을 다지면 이웃종단 스님과 재가불자들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천태종과 태고종도 각각 총무원장이 교체되면서 종단 일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3월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덕수 스님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무엇보다 화합과 질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주어진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매일 마음을 닦아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천명했다.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확립할 것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또한 선거 공약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 △지방교구 자율 운영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재정 확립 등을 이행해 태고종 중흥의 기틀을 다질 것도 약속했다. 이후 대사회 구호활동을 비롯해 전국종무원을 순회하며 결속을 다져 종단 안정을 꾀했다.

지난 4년간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화합을 이뤄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제13대 회장으로 광용 스님을 선출하며 다시 한 차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선거인 데다 광용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선거법 미비로 발생했던 과거의 혼란을 말끔히 씻어냈다. 광용 스님은 취임식에서 “중앙본회와 19개의 지회가 화합할 승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구니승가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약자의 아픔 보듬으며 보살행 실천

2023 대사회 결산

약자들 편에서 평등 세상 발원
국내외 구호활동 전개해 자비행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한인마을’을 점검하고 인근 임시거주지인 텐트촌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불교계는 올해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기도회, 오체투지 등을 통해 노동자 ·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설움을 함께했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 NGO 단체의 구호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갈등의 현장에 뛰어든 스님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활동을 적극 실천했다. 그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장애인 차별 없는 완전한 통합사회를 발원했다.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1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 전국 오체투지에 연대의 뜻을 표하며,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서울 오체투지를 함께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또 올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강보경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DL이앤씨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故 강보경 노동자의 49재를 겸한 추모위령재를 시작으로 매주 2회 분향소에서 추모기도를 열었다. 유족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청 기업인 DL이앤씨의 공식 사과와 합의를 이끌었다. 유가족은 “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스님들이 함께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든든하고 버틸 힘이 생겼다”며 “조계종 사노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올해 국내는 여름 집중 호우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 NGO 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기금 전달은 물론이고 생필품 지원,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이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동체대비 실천은 국외로도 이어졌다. 올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곧바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연에 나섰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불교계 구호단체들은 재난현장을 직접 찾아 일상회복을 위한 봉사를 펼쳤고, 임시주거시설도 제공했다. 올해 9월 모로코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조계종 사회부와 아름다운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연대한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이 현지 긴급구호에 나섰다. 로터스월드도 59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를 위해 긴급 모금을 실시, 식료품과 모기장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김내영 기자



11월 11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개막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문화유산 제자리…부석사 관음상 아쉬움

2023 문화재·학술 결산

도난 · 은닉 성보 32점 ‘환지본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제자리로
성철 스님 등 추모 세미나 잇달아
한국불교학회 50주년 맞아 행사도

2023년은 불교문화유산들의 환지본처가 잇단 해였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난 · 은닉 성보들이 본래 사찰로 돌아가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성보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포항 보경사, 구례 화엄사, 전주 서고사 등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성보들로 총 16건 32점이다.

일본에 소장됐던 700년 전 제작 고려사경이 국내로 돌아오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6월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寫經) ‘묘법연화경 권제6’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일본의 한 소장자가 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문화재청의 행정지원과 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흩어진 불교 관련 문화유산들도 제자리를 찾았다.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5년여 걸쳐 보존처리를 마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이 8월 10일 환수 기념 행사를 갖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월정사 등 불교계가 환수를 주도했던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도 의미가 크다. 지난달 환지본처한 오대산 사고본은 현재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실록박물관은 월정사가 운영하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새 단장한 것으로, 조계종과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위해 이를 국가에 기증했다.

다만 7년여 간의 소송전 끝에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 확정으로 부석사로 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

불교학계에서는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성철 스님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4일 ‘성철스님의 불교 인식과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3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성철 스님이 선문의 정법을 널리 펴기 위해 발간한 〈선림고경총서〉 37권 전권을 전자책 형태로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인 구산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간 국제학술대회 · 심포지엄, 구산 스님 수행처 방문, 효봉 · 구산 스님 공동 추모재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구산 스님에게 혜명(慧明)이라는 법명을 받고 송광사에서 간화선을 수행했던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와 덴마크 제자들이 직접 참가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는 청화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는 11월 30일 전남 무안 혜운사에서 열렸다.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열렸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일 ‘근 · 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 · 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 · 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불교학회가 창립 50돌을 맞은 것도 의미가 있다. 1973년 7월 7일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창립한 한국불교학회는 최초의 불교학 전문 학술단체로, 창립 이후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해왔다. 신중일 기자



“자승 대종사 대학생 전법 유지 계승”

(사)상월결사 이사회, 의지 천명
이사장 직무대행 원명 스님 선임
정관 변경…사무총장 직제 신설
사무총장 서리에 일감 스님 임명
내년 예산 수정 승인, 계획 확정
이사스님들 “동아리 지원 신속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상월결사는 12월 12일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유고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이사 원명 스님을 선임했다. 사진은 원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상월결사가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상월결사는 12월 12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해 대학생 전법 불사 등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자승 대종사의 영정에 삼배를 올리고, 추모 입정으로 시작한 (사)상월결사 이사회는 이사장 궐위 시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는다는 정관에 따라 지현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이사회는 직무대행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으며, 이사장 선출은 자승 대종사 49재 이후 진행키로 했다.

원명 스님은 “대종사께서 남기신 ‘부처님 법 전합시다’ 유지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봉을 전달받은 원명 스님은 △정관 변경 △2024년 사업계획 승인 △2024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사)상월결사 이사회는 7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9인 이하로 이사 정수를 확대하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이사회는 사무총장 서리에 일감 스님(조계종 前기획실장)을 임명했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임명 동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정식 임명키로 했다.

일감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유지와 이사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대학생 전법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소임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월결사 이사회는 202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15억5292만원을 증액 ·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월결사는 △교구별 신규 동아리 설립 △기존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교 음악 축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대학생 영 캠프) △상월결사 불자배가운동 ‘새 인연 맺기’ 프로젝트 의미 강화 △사회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사의 발굴 강화 △상월불교포럼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월결사 대학생 영 캠프’는 2000여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역대 규모 신행축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학생 불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상월결사는 대학생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전반을 직접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스님들은 대학생 전법 지원에 대한 빠르고 공명정대한 집행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사부대중 전법대회로 모연된 기금은 한국불교 대중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모아준 것”이라며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원에 대해 어떤 대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빠른 시간 내에 답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은 “현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불교동아리부터 지원하고 그 효과들을 홍보해야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동아리 지원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어느 해보다 2024년 사업들이 중요하다. 어느 대학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 前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 정충래 前 동국대 이사, 최진식 동국대 이사,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새해맞이 ‘소원의 탑’ 세운 조계사 매년 새해를 앞두고 ‘소원의 탑’을 밝혀 조계사를 찾는 모든 이의 소망 성취를 기원해온 조계사가 갑진년 청룡의 해에 앞서 올해도 소원의 탑을 세웠다. 12월 13일 진행된 소원의 탑 오픈 기념식에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신도들이 소원지를 달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이 시대 전법 주체로서 자긍심 갖자”

대불청, 제41차 전국불교청년대회…선업 스님 특별법문

‘더 큰 내일로 다시 새롭게’ 주제로
전국 각 지구서 회원 200명 동참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립한 이래 청년불자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포교 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2월 9~10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창립 103주년 기념 제4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더 큰 내일로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는 대불청 수석부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사진〉을 비롯해 지도법사 정범 · 각운 · 대혜 스님과 전국 각 지구 회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첫날 저녁 대불청 회기와 대회기, 지구회기를 앞세워 연수원 다목적홀에 집결한 회원들은 헌장전문과 강령을 외치며 만해 스님이 강조한 불교청년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민경순 불청대회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불교의 지혜로 더욱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미래에 책임감 있는 불교 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선후배 간 소통과 협력으로 대불청의 새로운 백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말했다.

장정화 중앙회장은 “청년포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청년에게 다가가게끔 전달하고,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불청은 청년포교와 함께해 불교의 미래를 더 밝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 발걸음에 참여해 불교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이어 특별법문에 나선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청년불자들이 이 시대 전법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초기 전법사를 보면 피눈물보다 더한 역경을 딛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 한 노력을 알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여러분이 불법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이익되게 할 때 진정한 전법이 이뤄진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회 모범 불청인 시상식에서는 최고상인 불청대상 수상자가 없었다. 자랑스러운 불청선배상에는 정권화 중앙자문단장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지구에 대구지구, 최우수지회에 울산경남지구 대우지회, 우수지구에 경기지구, 우수지회에 대구지구 유가사청년회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성진 · 번영희 · 나경균 회원 등이 특별표창을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청년불자 결의문을 통해 1920년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국 광복과 독립을 이루자’는 기치 아래 창립된 조선불교청년회의 정신을 잇는 한편, 불교대중화 사업에 진력해 미래 청년포교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충남 공주=윤호섭 기자

월정사 주지후보 정념 스님 선출

12월 12일 산중총회서…
임기 1월 29일부터 4년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인 정념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정념 스님은 2004년 첫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6번째 연임을 기록할 전망이다.

조계종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적천)는 12월 12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서 정념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새 임기는 내년 1월 29일부터 4년간이다.

윤호섭 기자

이관섭 실장, 대통령실 불자회장 내정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지난 4일 임명된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관섭 실장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이 실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사진〉

1996년 박세일 당시 사회복지수석을 보좌했다고 밝힌 이 실장은 “박세일 수석께서 청와대불자회를 만들 때 저도 계와 법명을 받았다”며 “그분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운 자리인 불자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종교 편향적 정부 인사 논란을 해소하는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종교 편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고 다만 (불교계와) 소통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이상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 불자회장을 맡게 된 데 “대단히 영광스럽고 뿌듯하다. 대통령실과 불교계 소통에 나서서 불교가 번영하고 나라가 편안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KBS 기독신우회 출신으로 종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상무 수석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어느 예배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게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2001년 사회부 기자 시절 백양사와 운문사를 취재해 보도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종교 화합을 위해) 자주 찾아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대통령실 불자회 사무총장을 맡은 이강래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참석했다. 한편 이관섭 정책실장의 대통령실 불자회장 취임법회는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됐다.

윤호섭 기자



‘대학생 전법’ ‘순례 대중화’…전법원력 결집

2023 포교·신행 결산

한국불교 미래 동량 육성 나서
역대급 규모 전법기금 마련도
순례길 조성…전법교화 주력
‘부처님 법 전하자’ 기치 올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코로나19 완화 이후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포교 · 신행 활동에도 훈풍이 분 한해였다. 올해 포교 · 신행의 키워드는 ‘청년 포교’ 와 ‘순례 대중화’ 진력이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

2023년은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청년포교 활성화에 주력한 한해다.

‘1사찰-1대학’ 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찰과 대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연결고리를 잇고 상월결사와 전법단, 교수불자연합회, 포교원 등이 함께 청년포교에 나서는 원년이 됐다. 심각한 침체에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수행과 신행문화의 원력을 대학생 전법에 집중,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을 육성하기로 한 것. 대학생 불자는 우리 사회 희망이자 어린이 청소년을 이끌어갈 미래의 길잡이로서 부처님 법을 전해 받는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부처님 법을 전할 훌륭한 전법 행자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전법은 지난 7월, 상월결사가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하고 교구 · 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인력 인프라가 구축됐다.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포교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부대중이 결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학생 포교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대학생전법위원회는 대학마다 불자 모임을 만들고 학생을 지원해 대불련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불교계가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주력한 가운데, 오랜 공백기를 갖던 불교 동아리가 재창립면서 결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1월 봉행된 군산대 불교학생회 창단법회 모습.

11월에는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 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불교동아리 설립을 위해 재정 마련에 나섰다. 대학생 전법 기금은 10년 안에 이뤄진 대학생 전법의 성패에 따라 한국불교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전법대회에서는 종정 스님부터 일반 신도까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원력으로 전법기금 기부에 동참했고 151억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전법기금이 모연됐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전법을 펼칠일만 남았다.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전법원력이 기대되는 2024년이다.

신행문화로 ‘순례’ 대중화 박차

조계종 포교원은 상월결사 순례에 발맞춰 포교연구실을 주축으로 순례길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2022년 허응당 보우의 길, 제주 관음 순례길, 경주 천년미소의 길 등을 개발했고 포교사를 비롯한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순례의 장을 연 바 있다.

올해 초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기해 종단 차원의 순례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순례 프로그램 개발과 전법교화의 원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강원, 충정권, 호남권에 걸친 8개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협의를 통한 33관음성지 사찰 순례길을 만들었다. 포교원은 순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 국내 순례길을 조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순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전법의 기치를 드높인 해이기도 했다. 포교원은 올해를 포교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 교구 본말사와 포교 · 신도단체를 통해 전법활동 동참을 독려하며 부처님 법을 곳곳에 전하고 한국불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전국민 스마트폰 활용시대를 맞아 모바일 신도증이 개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 초 공개된 모바일 신도증은 신도들의 종단 소속감 증대와 신도증 소지의 간편함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것으로, 기본적인 신도정보는 물론 교무금 납부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모바일 신도증 홍보를 위해 농구인이자 방송인인 허재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출가, ‘단절’ 아닌 ‘세상과 함께하는’ 삶”

교육원, 출가 안내서 2종 발간
은퇴자 등 계층별 맞춤 법문집
범해 스님 “출가 확대 · 전법 최선”

“출가하면 속세와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스님들은 절에서 참선만 하는 거 아닌가요?”

스님을 떠올리면 굳어진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스님들의 삶은 생각 이상으로 다채롭다. 이같이 출가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스님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출가 안내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은 출가 교재 2종을 발간했다. ‘슬기로운 출가생활’ 과 ‘불교는 좋지만 출가는 겁나는 너에게’ 이다. 이번 책은 출가 절벽시대를 맞아 출가자 확대에 기여하고, 출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스님들의 꾸밈없는 출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출가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책 ‘슬기로운 출가생활’ 은 각 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0명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다. 서울 홍대 거리에 글로벌 수행 놀이터 ‘JustBe 홍대선원’ 을 운영하는 준한 스님, 사찰 소개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440만을 돌파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무여 스님, 사찰 음식으로 지구를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성화 스님, 비구니 군법사 균재 스님, 사회복지사 혜능 스님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QR코드를 이용해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이 최근 발간된 출가 교재 2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책 ‘불교는 좋지만 출가는 겁나는 너에게’ 는 청소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맞춤 법문 자료집이다. 1부에서는 일반인, 청소년, 청년, 은퇴자 등 각 세대별 맞춤 법문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를 기록한 ‘불소행찬’ 을 비롯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경전, 선어록 등을 바탕으로 출가 정신을 되새겨본다. 3부에서는 소년출가, 청년출가, 일반출가, 은퇴출가 제도로 출가한 스님들의 사례를 들려준다. 꿈을 이루기 위해 16세에 출가한 스님, 자매가 같은 날 출가한 스님, 교장 정년퇴임 다음날 출가한 스님 등 특별한 출가 이야기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12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출판 기자 간담회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출가 이후 더 크게 꿈을 이뤄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 스님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영상과 에세이로 만날 수 있다”며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 바른 행동으로 현명한 길을 걸어간다면 행복한 삶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책을 통해 출가에 대한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교육원도 책 발간의 인연으로 축가자 확대와 전법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은 두 권의 책을 템플스테이 사찰이나 군법당, 대학교 법당 등에 배치에 출가 상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찬불가 율동영상 시리즈 ‘108배’ ‘길’ 공개

화계사 어린이법회서 참여
‘키즈붓다’ 등서 시청 가능



전국 사찰 어린이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교콘텐츠인 찬불가 율동영상 두 편이 공개됐다.〈사진〉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는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찬불가 율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은 ‘108배’ 와 ‘길’ 두편으로 서울 화계사 어린이법회 법우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전국사찰 온 · 오프라인 법회 현장에서 포교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찬불가 율동영상 콘텐츠는 포교원에서 4년간 진행한 전법중심도량 영상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올해 4번째 시리즈 제작을 완료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가 음원 제공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율동 지도를 맡았다. 포교원은 지속적인 전법중심도량 영상콘텐츠 개발에 노력, 사찰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들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공식채널(www.youtube.com/@buddha108)과 어린이 포교 사이트 키즈붓다(www.kidsbuddha.org)에서 시청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혜월 스님

구마라습 생애와 사상 그린 소설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서산 약선사 주지 혜월 스님〈사진〉의 소설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속으로 가다〉가 선정됐다. 대상 작품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속으로 가다〉는 구마라습의 탄생, 성장, 결혼, 업적 등 일대기를 흥미진진하게 엮은 전기소설이다.

남지심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은 “혜월 스님의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속으로 가다〉는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마라습의 생애를 그려내고 있다”며 “불자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구마라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혜월 스님은 “작가로서 꿈을 15세에 품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그 원을 이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불교문학의 발전을 발원하며 명작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법계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5일 청도 운문사에서 열렸으며, 이날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신중일 기자

사찰림 공익 가치 증진할 공원위원회 출범

조계종, 12월 8일 위촉식 · 회의
전문성 갖춘 위촉직 등 총 19명

전국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의 공익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원위원회’ 가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공원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도출해 국립공원에 대한 불교문화유산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만들어졌다.

공원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자연생태계 및 공원정책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조직됐다. 이날 진우 스님은 정연만 불교포럼 공동대표, 유기준 상지대 교수, 김상기 종책특보, 이영석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김봉석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인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설악산 국립공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오대산 국립공원),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속리산 국립공원),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팔공산 국립공원),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팔공산 국립공원),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가야산 국립공원),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내장산 국립공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지리산 국립공원), 갑사 주지 탄공 스님(계룡산 국립공원)이 포함됐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정덕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19명으로 구성된 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지혜와 경험을 살려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 중 사찰림이 8% 정도로 높지 않지만,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사찰림이 존재한다. 전통사찰도 1700여 년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며 “공원법 개정에 따라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은 현재 22개소로 사찰지는 공원 내 육상면적 7%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야산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38%, 내장산 국립공원 사찰지는 26%를 차지한다.

게다가 공원 내 불교문화재는 국립공원 전체 문화재의 72%로, 사찰림과 문화재 등 불교문화유산이 공원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공익적 가치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돼 비합리적인 규제를 받아야 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승인

학사학위 취득 교육기관 발돋움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진흥원은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가 대원아카데미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을 받아 ‘학점은행제’ 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승인 받은 4개 과정은 △불교심리학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이다.

대원아카데미는 학점은행제 승인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 학점취득 교육기관이 된다.

불자 인재양성과 현대적인 불교 교육을 목표로 1973년 설립된 대원아카데미(구, 대원불교문화대학)는 불교교양대학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아, ‘명상’ 과 ‘심리상담’ 등 현대적으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현대사회에 걸맞는 불교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아동미술잔치 시상…대상에 박서아

12월 13일, 시상식 개최…107명 수상 영광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이 개최한 제15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에서 구로 연꽃어린이집 박서아 원아가 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어린이집원장협의회는 12월 1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모습을 그린 ‘즐거운 나의 일상’ 을 대상작으로 시상했다.〈사진〉 상장과 부상은 박서아 원아 대신 류미아 원장이 대리 수여했다.

15회 대회는 불교동화 〈원효대사와 해골물〉 〈스님의 세 가지 보물〉에 대한 상상화, 즐거운 일상, 환경보호를 주제로, 전국 재단 산하 어린이집에서 작품을 접수받아 진행됐다. 전국 28곳에서 825명의 원아가 대회에 동참했으며 11월 14일 재단 선정심의회를 거쳐 총 107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과 함께 맑음상 3명, 밝음상 4명, 향기로운상 2명, 단체상 1곳 등 총 10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은호 기자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순례를 이어가는 모습.



지난 11월 29일 원적에 든 자승 대종사의 다비식이 12월 3일 용주사에서 엄수됐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한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협약식.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외국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사찰예절을 배우는 모습.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에 돌아가게 된 비운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불교 중흥 기틀 세우다

현대불교 선정 2023년 10대 뉴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을 뒤로 하고 일상을 되찾은 2023년은 한국불교사에서 전법의 열기를 세상에 전한 해로 평가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라는 대장정을 비롯해 잼버리대회 지원, 해외 재난 구호활동 등 불교계 대내외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와 반대로 아픔도 많았다. ‘큰스님’으로 불리던 스승들의 입적, 도난문화재의 일본 반환 판결 등은 불자들이 잊기 힘든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 해를 장식한 한국불교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현대불교 편집국**

1. 스님들의 원적 잇달아

올해는 유독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어른스님들의 원적 소식이 많았다. 지난 6월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을 시작으로 8월엔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나가당 성타 대종사, 10월엔 태고종 종정을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사, 11월엔 조계종 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 회주로서 사부대중을 이끈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다. 대종사·대강백의 잇단 원적에 한국불교계의 하반기는 선지식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이 스님들이 특정 제자들의 은사라기보다 수많은 대중의 스승이었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애통한 해였다.

2.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간 1167㎞ 7대 성지를 도보로 순례한 사부대중의 고행은 불교가 쇠락한 인도에 다시 한 번 전법의 가치를 전함과 동시에 한국불교의 위기를 실감하고 중흥의 원력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상월108원력문이 탄생하고 생활 속 공양게 낭독, 매일같이 이어진 예불과 108배는 그간 소극적이었던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앉아있는 불교’가 아닌 ‘찾아가는 불교’로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가치는 인도순례 회향 이후에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

3. ‘부처님 법 전합시다’ 확산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인사)를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남긴 회향사다. 스님이 강조한 전법의 중요성은 이후 한국불교계로 확산돼 영향을 미쳤다. 조계종뿐만 아니라 이웃종단, 전국교구본사, 동국대, 신도·포교단체까지 범불교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단위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4. 문화재관람료 전액 감면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은 60여 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거쳐 4일부터 사찰 방문객의 무료입장을 시행했다. 온 국민이 향유하는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하고자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는 감면비용을 지원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올해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예산은 419억 원이며, 감면 대상 사찰은 총 64곳이다.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보유사찰이다.

5. 잼버리서 더 빛난 한국불교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빛을 발했다. 무더위와 준비 부족으로 새만금 영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전북 지역사찰들이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 특히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긴급 지원 지침을 내려 사찰 개방과 함께 더위에 지친 대원들이 사찰에서 휴식을 취하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불교계의 발 빠른 대응에 정부와 지자체는 감사의 뜻을 전했고, 불교계를 향한 국민의 호평이 쏟아졌다.

6. 출가 절벽 끝 변화 모색

출가자 감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40년 넘는 역사의 중앙승가대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동국대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불교계에 적잖은 충격이었다. 지속된 출가자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재정 문제가 겹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계종은 미래본부에 출가장려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원 봉녕사는 4주간의 여성출가학교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성과는 내년에야 알 수 있겠지만 출가 문호를 넓히는 시도로써 기대를 모은다.

7. ‘네버엔딩’ 종교편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종교편향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로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교편향 행정으로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노아의 방주’ 대형 조형물 지자체 유치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기독교 편향적 인사,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불교 홀대는 출판 영역까지 확대, 양서 보급을 위해 국고를 들여 선정하는 ‘세종도서’에서도 종교 부분 도서들이 기독교 도서 일색인 데다,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들도 기독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8. 결국 日로 가게 된 부석사 관음상

결국 서산 부석사의 관세음보살님은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현해탄을 건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0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관음상을 놓고 이어진 7년간의 법정 공방은 부석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교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고, 조계종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 최악의 판례를 남겼다”고 힐난했다.

9. 다시 제자리 찾은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옮기는 이운행렬 재연행사가 진행됐고, 다음 날에는 고유제가 봉행되며 환수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 같은 기념행사를 거쳐 이운된 오대산 사고본은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실록박물관은 월정사가 운영하던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새 단장한 것으로, 조계종과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위해 이를 국가에 기증했다.

오대산 사고본은 110년만에 제자리를 찾으며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됐다. 앞으로는 결집된 지역의 역량과 원력을 바탕으로 잘 보존·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10. 해외구호 활동에 십시일반 앞장

올 한 해도 불교계는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구호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올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곧바로 구호성금 모금에 돌입했고, 재난 극복을 기원하는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보시가 줄을 이었다. 이재민들을 위한 컨테이너 주택, 생필품 등을 지원해 일상회복도 도왔다. 또 올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기자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모금이 진행됐고,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라 봉행됐다.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보현행 실천해 화엄의 법석 장엄”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30일 여정 입재

12월 13일 입재법문 지안 스님
“화엄경, 대승최상승 법문 의미”
통도사 법요집 개편해 봉정식도
1월 10일 회향, 30일 동안 정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의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지안 대종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12월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전국 최대 화엄산림법회라는 명성답게 입재법회 시작 전부터 불자들이 법당을 빼곡하게 채웠으며 벽면에 안치된 영가설판 영단에는 흰 국화와 영가옷, 다식 등이 가득했다. 입재식은 먼저 영가의 업을 정화하는 관욕으로 시작해 사시불공으로 이어졌다. 불자들은 사시불공에서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금강계단을 향해 절했고, 참석자들은 영가천도와 화엄경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아울러 통도사는 새롭게 개편한 통도사 법요집을 봉정했으며, 법요집 개편에 도움을 준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입재법회 법문은 조계종 前 고시위원장 지안 대종사가 설했다. 지안 대종사는 이날 오전 입재법문에 이어 오후에 ‘화엄경 현담’을 강설했다.

지안 대종사는 “수승한 인연 공덕이 모여 화엄산림법회가 열리게 됐다. 이 법회는 부처님과 불법 그리고 스님 등 삼보의 공덕을 기리는 마음이 지극하게 모인 결과다. 수고해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화엄경은 대승최상승 법문이며 다른 경전과는 달리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처음으로 설한 법문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성불의 길로 보살행을 강조하며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의 힘을 잘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듯 살아가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화엄산림법회 시작을 알리며 정진을 당부하는 주지 현덕 스님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현덕 스님은 “부모님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극진한 효도는 바로 법당에서 화엄경을 듣고 인연 모든 영가가 환희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보살의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보현행을 실천하고 많은 대중이 모여 불편한 순간에도 배려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현행 실천으로 수행의 참 열락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12월 13일 입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 봉행된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화엄경에 대해 설법하며 총 30명의 법사스님들이 법좌에 오른다. 마지막 법회일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문하며, 회향식에서 불자들은 봉송 의식에 참여한다. 봉송 의식은 불자들이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적멸보궁을 한 바퀴 돌아 열반 정토로 영가를 안내하고 소대한다. 매년 봉송의식에는 10만여 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장엄한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울러 천도의식을 위해 통도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예불 후에는 금강경 독송과 법성게 장엄염불을 진행한다. 법성게 장엄염불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친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의식이다. 법성게 장엄염불 의식은 법주인 스님들의 염불을 따라하며 광목 끈을 잡고 법당을 돈다. 이는 연기적 관계를 상징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어 고해의 바다를 반야용선을 타고 함께 건너자는 의미다. 이번 화엄산림법회 법성게 법주는 선원 스님(통도사 문수전), 인경 스님(신흥사 주지), 범철 스님(홍제사 주지),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원장), 영수 스님(통도사 노전)이 담당한다.

유가합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 열린다

진각종 부산교구, 12월 21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서 ‘다시 증조 정신으로’ 주제로


진각종 부산교구청 산하 부산경남지역 심인당 신교도로 구성된 유가합창단.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유가합창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청장 현강)은 12월 21일 부산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유가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다시 증조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부산교구 15개 심인당에서 참여한 불자들이 화합해 음성공양으로 법음을 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인사말에 이어 유가합창단이 찬불가 ‘삼보에 귀명하오니’ ‘인과의 그림자’ ‘귀의하는 마음’ 등으로 무대 시작을 알리고 다채로운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출연으로 유가어린이합창단과 BTN남성중창단이 무대를 꾸미며, 뒤풀이 공연에 권미희 국악가수의 무대도 마련된다.

유가합창단은 진각종 부산교구청 산하 부산경남지역 심인당 신교도로 구성됐다. 30년 전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열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창단됐으며,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음성공양과 불교포교, 생활불교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창단 이후 부산불교연합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각종 무대에서 찬불가 발표 및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진기 50년 기념음악회 대서사시 발표와 창종 50주년 기념 교성곡 ‘회당’ 발표 등에 참여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현강 정사는 “합창은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균형을 이루는 노력으로 울리는 소리의 조화”라며 “15개 심인당에서 모인 보살님들의 맑고 고운 화음이 우리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활력소가 되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유가합창단은 각종 불교행사에서 종단을 홍보하고 감동과 울림으로 부산교구 신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며 “‘다시 종조정신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올 한 해 동안 종단이 추진해온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유가합창단의 음악회는 또 다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연합회, 장애인 위령재 봉행

장애인 가정에 장학금 지원도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림)는 12월 9일 사상구 관음사에서 장애이웃과 장애인 영혼을 위한 행복나눔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부산불교어산회는 최초로 장애인 영혼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돌아간 영령들을 위로했다.

행사에는 사상구연합회 고문 청강 스님을 비롯해 회장 성림 스님, 총무 도법 스님, 감사 법경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일우 스님,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 부산불교어산회 완공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과 윤태한 부산시의원, 이종구 · 김종선 구의원 등 300여 대중이 함께했다.

회장 성림 스님은 “몸에 장애가 있다고 마음까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령들께서는 밝고 편한 본성 자리에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봉행사를 전했다.

연합회 고문 청강 스님은 “어산회 스님들이 염불을 잘해줘서 장애의 슬픔을 가진 유주무주 고혼들도 기뻐하며 이고득락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태상 사상구장애인협회장은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연합회와 어산회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장애인 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사상구장애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초 · 중 · 고교생 12명에게 각 30만원 총 3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김장 3000포기 지역사회 지원

정여 대종사 등 200여 명 동참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직무대행 정오)는 12월 9일 경내 하후원에서 ‘범어사와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방장 정여 대종사,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과 신행단체 회원 및 산하법인기관 관계자 등 봉사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3000여 포기의 김장을 직접 담가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다. 범어사는 이날 김장을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등 산하 시설 12곳,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4곳에 전달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사찰에서 모두가 함께 울력하고 나눔으로 회향하니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은 “우리들의 정성과 마음이 전해져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광사, 김장으로 나눈 ‘이웃과의 정’

김장 1만㎏ 총 1400세대 지원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12월 7일 경내에서 ‘천태종 삼광사 · 복지재단 부산지부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재무 무성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자운 스님을 비롯해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부산진구 국회의원, 배영숙 부산시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배추 5200포기의 김장을 마련하고, 삼광사는 이날 담근 김장에 더해 총 1만㎏를 부산진구청과 서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 가정 등 1400세대에 전달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우리가 버무린 김장이 이웃에게 따뜻한 정으로 전해지도록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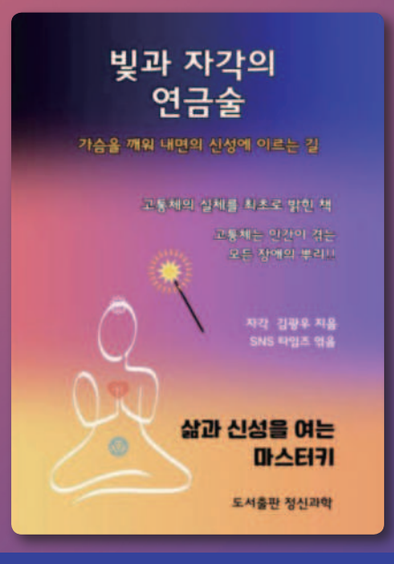
(사)날마다 좋은날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Tel. 02-733-7277 everygoodday.org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행복바라미.: 와 함께 따뜻한 연말 되세요!

모금계좌 국민은행 023537-04-003561 (사)날마다좋은날
ARS기부 060 - 701 - 0108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삼귀의 · 오계 수지하고 '참 불자'로 거듭

마산 정법사,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봉행

불교대학 재가불자 246명
어린이 21명 오계 수지해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12월 9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아사리를, 주지 광우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맡았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통도사 율원 학감 정본 스님과 현각 스님의 인례로 영축불교대학 학인과 재가불자 우바새 42명, 우바이 204명 어린이 21명 등 총 267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로 거듭났다. 어린이들에게는 청수를 뿌리는 의식으로 연비를 대신했다.

갈마아사리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부처님의 오계는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불자의 생활신조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다"며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계아사리 덕문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의 덕목을 전하며 "오랫동안 정법사에서 신행 활동을 해온 많은 불자가 수계의식에 참석해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린이 불자들도 계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어린이 불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불교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주지스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고 격려했다.


스님이 향으로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덕문 스님은 연비를 마친 수계자들을 대표해 김선정 불자와 한지음 어린이에게 수계첩을 수여했다. 당초 어린이 수계신청자는 100명을 상회했으나 최근 유행하는 독감으로 인해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정법사는 젊은 세대 포교를 위해 불교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이후 문호를 넓혀 일반 불자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수계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화엄사, 화엄석경 보존관리 방안 모색 세미나

12월 10일 화엄석견관서
AI 활용 복원 모습 소개

1만4000여 점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화엄사 '화엄석경(華嚴石經)'의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화엄사(주지 덕문)는 12월 10일 화엄석경관에서 '화엄석경 전시관 활용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주지 우석 스님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화엄석경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지금부터 내딛는 걸음걸음이 법고창신의 전통을 이룩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지 덕문 스님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했다.

화엄사는 세미나에 앞서 올해 4월 20일부터 화엄사와 화엄석경에 관한 학술적 연구자료 조사와 분석 및 연구방향 고찰, 화엄석경 분류 및 복원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 원형DB 구축 기준 제시, 화엄석경의 재질 분석 및 손상도 평가를 통한 보존관리 방안 제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시 등 목적을 위해 3회(1차 6월 15일, 2차 7월 14일, 3차 11월 6일)에 걸쳐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엄석경 학술연구 △유물 분류 및 정리 △보존관리방안 △복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이날 세미나에서 보고회 행사를 개최했다.

성보보전연구소(대표 박규만)는 용역 보고를 통해 '신라사경 연구에 있어 화엄석경이 가지는 의의과 가치' '화엄석경의 구조 복원 연구 방향 제시' '화엄석경 분류' '가상 파편 복원 개념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화엄석경의 재질분석' '손상도 평가를 통한 보존처리 계획 기초조사' '디지털 컨텐츠 제작' 등을 설명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1만4000여 개의 파편을 가상 조립, 복원된 모습을 선보였다. 또 3D 테이터 구축으로 유실된 부분을 메우는 3D 프린팅으로 전체 완성형 모형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규갑 이사장의 '화엄석경의 초보 탐색' △한국사경연구회 조미영 이사의 '〈화엄석경〉 기존 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 설정에 대한 제언' △성보보전연구소의 '화엄석경전시관 활용과 보존관리계획수립'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보물 제1040호인 화엄석경은 의상조사가 신라 문무왕 17년(677) 법당 안에 장육황금입불상(丈六黃金立佛像)을 모신 장육전을 세워 2층 4면 7칸의 사방벽에 화엄경(華嚴經)을 엷은 청색의 돌에 새겼다. 이 장육전이 정유재란 당시 화마로 파괴돼 지금은 조각만 남아 '화엄석경'으로 불린다.

이후 장육전이 각황전으로 중건될 때 화엄석경 파편들을 불전 근처에 정리하여 쌓아 놓은 것을 1938년 각황전 해체 복원 후 정리했다. 석경은 1만4242점으로 이들을 크기별로 분류해 163상자로 나누어 각황전 불단 밑에 보관했다. 이 화엄석경은 우리나라 화엄종 사찰의 상징적 유물로서 신라 후기의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3 동국인의 밤…"학교발전 위한 결집"

동국대 총동창회, 12월 7일
동국인상 대상 성영식 씨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문선배)가 2024년 동국대 발전을 위해 동문 원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1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5만 동국인과 함께 하는 2023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고 학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다.〈사진〉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2023년 동국대가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하는 등 동문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총동창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도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8위의 성과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힘입은 것"이라며 "특히 학생 교육부문 5위 달성은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동문회는 동창회 구심점이 될 동창회관 건립을 비롯해 35만 동국인 역량 결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는 그동안 학교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을 갖고 울트라 112 장학재단 설립으로 매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경영학과 67학번 성영석 씨에게 동국인상 대상을, 광주전남지부 동문회에 최우수 단체상을 수여했다.

또 2019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과정 초대동문회장으로 발전기금 기부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을 비롯한 8명에게 2023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동국인의밤 행사에는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동국대 정각원장을 지낸 은해사 조실 법타 스님과 동국대 전 총장 보광 스님,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전순표 전 총동창회장과 역대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진주 약사정사 팥죽 나눔

12월 10일, 주민 250여 명에

진주 상봉동 약사정사(주지 진여)가 동지를 앞두고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약사정사는 12월 10일 경내 앞마당에서 지역 주민 250여 명에게 동지팥죽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도시락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진여 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동참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팥죽을 드시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신도회 무료 국수나눔

12월 12일 어르신 300명에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신도회(회장 임종혁)가 사랑의 국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선운사 신도회는 12월 12일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대원)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종혁 선운사 신도회 회장과 정찬원 부회장 등 신도회 회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국수를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지역 주민 어르신 300명에게 대접했다.

임종혁 회장은 "선운사 신도회는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비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며 "이런 좋은 봉사 기회를 마련해준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를 대접해주신 선운사 신도회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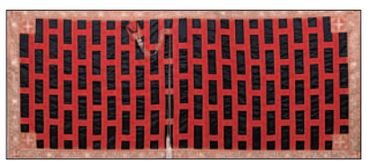
화엄사, 정미자 작가 전통자수 전시

내년 1월 2일까지…24점 전시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성보박물관이 오는 1월 2일까지 '수행(繡行) 문을 열면서'라는 제목으로 혜서 정미자 작가의 전통자수 작품 24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수행자 의복과 전통가사를 재현한 전통 바느질로 재현한 작품전이다.

정미자 작가는 "수행(繡行)이란 실사(絲)와 엄숙할 숙(肅)이 만나서 수놓을 수(繡)가 된다"며 "옛 반가(규방)에서 이루어졌던 고급문화가 수와 바느질을 통한 예술문화를 정착하듯이 수를 놓는 것을 불가의 수행(修行)법으로 하였다. 금번 전시 작품은 총 24점으로, 대표적인 '일월광첩을 수놓은 9조 홍가사', 고려불화에서 재현한 '25조 첩상가사'이다"고 강조했다.



전시회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일월광첩'〈사진〉은 해를 상징하는 까마귀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를 중심으로 여러 문양을 표현했다. 불교에서는 해와 달을 불보살의 화신이나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로 나타낸다. 해와 달의 광명이 불교의 지혜와 자비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가사의 네 모퉁이에 사천왕첩을 부착해 우리나라의 전통 홍가사만의 특징을 나타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김장 자비나눔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법안)는 12월 7일과 8일 창원 성주사에서 '우리 농산물판매 촉진 및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김치김치 나눔행사에는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회장 법안 스님(성주사 주지)과 상임고문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서호관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권경숙 복지담당 등이 동참했다.

이날 김장김치 나눔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 300kg(3kg 100박스)를 창원특례시에 전달했다.



김장김치는 창원특례시 마산 회원구와 진해구의 노인복지단체에 전달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계, 어려운 이웃에 김장 전달

광주불교계가 마련한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광주 관음사, 광덕사, 만경사, 문빈정사, 복암사, 보응사, 소원정사, 신광사, 증심사, 약사암, 원효사, 빛고을포교원, (사)자비신행회는 12월 8일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 북구청(청장 문인)을 통해 북구지역 돌봄이웃 300세대에 겨울 김장김치 2700kg를 전달했다.〈사진〉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소중한 마음을 내어 주신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해져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영불교사암聯, 동절기 연탄·난방유 나눔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보현사 주지)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난방용 연료와 연탄을 지원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통영불교거사림(회장 안휘성)은 12월 9일 통영시 비석4길 정자에서 '불기 2567년 계묘년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및 난방유 지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는 2세대에 각각 3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또 7세대에는 각 200리터의 등유(총 4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각 세대마다 라면 1박스와 간편식도 함께 선물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부처님세상,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개최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불기 2567년 계묘년 전북 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12월 9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 이창구 전북불교대학 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장순금 전북불교대학전법사 회장, 조강숙 자원봉사단장, 재학생과 동문 학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준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전북불교대학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전북불교대학이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 · 수현 불교대학 총동문회 송년법회

조계종 17교구 김제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 총동문회가 12월 9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3층 큰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 동문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치하했다. 임호연 수현불교대학 동문회장과 강만곤 화엄불교대학 동문회 부회장, 임희창 화엄불교대학 동문회 사무국장에게는 포교와 신행활동에 헌신적인 활동을 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래불교조계종 3대 종정에 성관 스님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평)이 2024년을 앞두고 3대 종정으로 서울 극락정토사 주지 성관 스님을 추대했다. 여래불교조계종은 12월 14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극락정토사에서 제3대 종정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종정 추대 직후 성관 스님은 "무엇보다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해 전법포교활동을 비롯하여 사회봉사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총무원장 덕평 스님은 "빠르게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가며 일심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스토리텔링 기획
템플스테이 & 피플 3 〈끝〉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해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템플스테이를 찾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매력에 푹 빠진 다회 참가자들에게 템플스테이 참여 목적과 느낀점, 개선방향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행복은 내 마음서…비움의 여행에 동참하세요"

박종국 갤러리P1 디렉터

5년간 147회로 '템플 참여 횟수 1위' 기록해
사찰마다 다른 특색 흥미…가족 소통 강화도



사람들은 왜 템플스테이를 찾을까. 저마다 사연은 각양각색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과 위안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템플스테이 참여 횟수 1위'를 기록한 박종국(65) 갤러리P1 디렉터 역시 마찬가지다. 박 씨는 지난 5년간 전국 145개 사찰(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포함)에서, 무려 147회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이례적인 기록이지만 그가 템플스테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휴식'이 필요했다. 그는 한 직장에서 25년을 일했다. 업무 강도가 높았고 야근이 잦았다.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로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퇴사를 결정했지만 척추관협착증이 심해졌고, 몸과 마음도 지쳐갔다.

'쉼'이 절실하던 2017년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스님이 '한 달 살기 템플스테이'를 추천했다. 무여 스님이 조실로 있는 경북 봉화 축서사였는데,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 꼼짝없이 사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덕분에 잠시 멈추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제가 불자는 아니지만 축서사에서의 템플스테이가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의 단초가 됐습니다. 차 없이는 외출도 힘든 환경이다 보니 오로지 자연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찰에서 느꼈던 편안함은 정말 특별했고 자연스럽게 템플스테이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주말 사찰을 찾았다. 유명사찰부터 암자까지 전국 곳곳을 누볐다. 템플스테이 참여 횟수가 늘어갈수록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량석을 하면서 뜻 모를 〈천수경〉을 읊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지역별로 사찰이 가진 특색을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웠고 자연환경,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사찰만의 특화된 장점을 정리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됐다.

템플스테이는 가족 간 소통 ·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줬다. 서울 근교 사찰로 템플스테이를 갈 때면 항상 아내 원윤희 씨와 동행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다.

다양한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불교문화는 발우공양이다. 2019년 5월 처음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날, 단무지로 그릇을 닦아 먹고 있던 그에게 "음식은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 먹는 것"이라며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의 말이 여전히 가슴에 생생하게 남았다.

"템플스테이는 나를 내려놓는 비움의 여행입니다. 조용히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기운을 가득 받다 보면 어느새 화나 욕심은 사그라지고 포용과 배려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늘 '하심'을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템플스테이에 가는 거죠. 하하."

그는 템플스테이 최다 참가자로서 향후 템플스테이의 개선점도 제시했다. 참가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씨는 "템플스테이를 찾는 계층은 너무 다양하고 오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개인 상담을 진행해 템플스테이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프로그램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남기는 후기보다 템플스테이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살필 수 있고, 이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참여자들의 호평도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내년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도 전했다. "템플스테이를 다니면서 찍어둔 사찰 사진이 2000장 정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담은 사진집을 전자책(이북, e-book) 형태로 발간해 그간의 추억을 지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골굴사 선무도 체험 모습.


박종국 씨와 아내 원윤희 씨가 미향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집착 버리고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삶 얻었죠"

이승근 불자

불교 교리 매료돼 템플 시작…29곳서 48회 참여
스님과 차담은 진정한 행복 찾아가는 치유시간



"박수를 한 번 쳐보세요. 박수 소리를 잡아둘 수 있나요? 박수 소리에 현재라는 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한순간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을 살아야죠."

템플스테이가 이승근(42) 불자의 삶에 새긴 이정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은 결국 고통만을 낳을 뿐,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의 조언 덕분이다. 그는 뜻하지 않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엄습해 올 때도 템플스테이에서 체득한 배움을 통해 마음을 다잡곤 한다.

이 불자가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건 불교와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회사생활에 지쳐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지인이 불교 공부를 추천했다. 막상 불교 공부는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무작정 인터넷으로 불교를 검색, 관련 글을 찾아 읽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하는 '나'에게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불교의 사상과 교리에 매료된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에 매진했다. 봉은사 불교입문교육, 화계사 불교대학 기본반 등 기초교육에서부터 국제선센터 경전반, 조계사 참선입문과정, 정토회 정토경전대학, 봉은사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조계사 목탁교육, 화계사 불교대학 전문반, 참불선원 초기불교대학 등 전문과정까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갔다. 템플스테이에 빠지게 된 것도 그즈음이다.

이 불자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29개 사찰을 돌며 48번의 템플스테이를 참여했다. 한 회 한 회 템플스테이 경험이 쌓일수록 손에 쥐고 못 놓던 것들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됐다. 점차 마음에는 여유가 생겼고, 비로소 행복도 보였다.

그는 각 사찰 템플스테이의 좋았던 추억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다녀온 사찰과 느낀 점을 짧게 메모로 남기기도 했다. '첫 다도 체험한 봉녕사' '걷기 명상엔 수원사' '태극권 수국사' '떡국이 맛있었던 금강정사' '절경이 빼어난 천축사' '천태종을 경험한 관문사' '미혼남녀 템플스테이 화계사' '동양최대불상 대광사' '염불수행 정토사' '해수관음상 낙산사' '계곡이 인상 깊은 묘적사' '성격분류명상 봉인사' 등 사찰마다 특색도 각양각색이다.

그중에서도 충북 청주 용화사는 그에게 가장 특별한 사찰이다. 용화사에서만 5번의 템플스테이를 했을 정도다. 지도법사스님의 지도아래 맑은물명상, 자비명상, 지족명상, 나지사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다. 특히 스님과의 차담은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치유의 시간이 됐다.

"불교는 지옥도 극락도 내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회사생활에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솔선수범했더니 몇몇 선배들이 붙임성이 참 좋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힘든 회사생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불자는 다회 참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법도 제시했다. 이 불자는 "템플스테이 참가비용은 사찰마다 다르지만 보통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책정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엔 매주 참가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템플스테이를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거나, 10회 이상 참여자들에 한해 할인제도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위로받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00년 이상 더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묘각사에서 스님과 차담을 하고 있다.


용화사에서 범종체험을 하고 있다.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원



“어르신~ 솜이불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11.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정나누기

의정부=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어르신~ 솜이불로 올해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나세요.”

해마다 낙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올해도 겨울 물품 지원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12일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 ‘제10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일면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용수, 가수 이소원과 임지민 등 봉사자 20여 명은 이날 의정부 금오동 일대 저소득 550가구에 각각 겨울 솜이불 1채와 물티슈 한 박스, 라면 등 각종 저장음식 담긴 식품 1박스 등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겨울용품 전달 전,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륜)에서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으로 떡국 공양을 올린 것. 특히 일면 스님이 직접 내서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고 배식봉사를 펼쳐 훈훈함을 더했다.

일면 스님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신이 가득한 떡국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겨울 추위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을 다해 마련했다”면서 “매년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어 준 기부천사 배수지 배우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점심으로 어르신들에게 떡국 공양을 올리며 직접 배식해 훈훈함을 더했다.

떡국 공양 후, 복지관 3층에서는 전달식과 함께 작은 콘서트가 열렸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이소원, 임지민 가수의 흥겨운 노래에 어르신들은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씨가 후원한 2000만 원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배수지 씨는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나누기 행사를 후원해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및 독거 장애인 가구 등에 후원된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정현숙 후원회장은 올해도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해 준 배우 배수지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나눔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매년 연말 의정부 지역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면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도 배우 배수지 씨가 2000만 원을 후원, 550가구에 솜이불과 식품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 기분이 좋다. 어르신들이 더욱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도록 의정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 후 봉사자들은 각 가정으로 이불과 물품 배달을 시작했다. 이날 겨울이불이 전달된

생명나눔실천본부 12월 12일
의정부 인근서 ‘정 나누기’
가수 수지 2000만 원 후원
엄용수 등 홍보대사도 동참

곳은 의정부 금오동 지역으로,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기반시설 노후로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열악한 주택상황으로 스님을 포함한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솜이불을 옮겼다. 지층 단칸방에서 생활관리사의 도움으로 홀로 살고 있는 김모(86) 할아버지는 평소 인기척이 거의 없던 집에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특히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용수 씨를 알아보며 해병대 시절, 연예병으로 활동했던 당시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두툼한 솜이불을 보니 올 겨울은 마음이 놓인다”면서 “지원 물품으로 따뜻하게 잘 지내겠다. 고맙다”면서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이소원, 임지민 양은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가수 이소원, 임지민 등 홍보대사들은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 훈훈함을 더했다.

이소원 홍보대사는 “직접 와보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골목 곳곳 소외이웃에게 솜이불 배달을 마친 일면 스님은 “오늘 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온정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5만 회원님들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서로 도움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면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앞으로도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따뜻한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자 여러분들의
절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세요.

계좌번호 농협 053-17-001346
예 금 주 (사)생명나눔실천본부
*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본부로 전화 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문 의 02-734-8059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3~12/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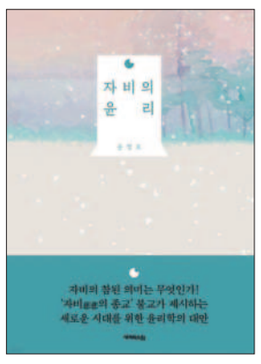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7	어상: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김성철	오타쿠
4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9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5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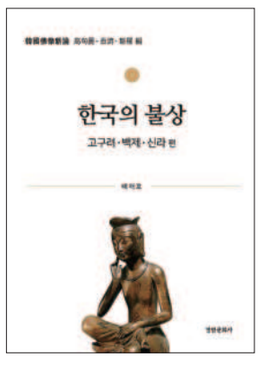
자비 윤리학 · 불교서사 · 뇌과학…불교연구 지평 넓히다

주목! 학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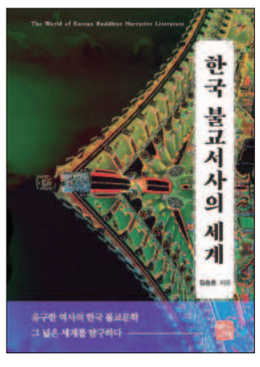
정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서 자비는 어떤 의미인가

자비의 윤리/ 윤영호/ 세개의 소원/ 1만6000원

지금 우리에게는 나만의 삶이 아닌, 시대와 함께 아파하고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를 위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의 재구축을 역설한다. 특히 단순한 이론적 유희가 아닌 실천 가능한 윤리학, 잃어버린 윤리학의 권위 회복을 바라는 절박함으로 연구를 진행, 그 대안으로 불교의 대표 정신인 '자비'에 주목한다.

대승불교 선맥 총체적 조명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 박화문
운주사/ 2만2000원

이 책은 한평생 유식을 비롯해 대승사상을 널리 연구해온 저자가, 불타가 창립한 대승선(大乘禪)과 금강삼매의 선(禪)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집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생의 본성은 본래 대승성이며 진여성이며 불성이며 보리성임을 강조하여 이러한 본래의 성품을 찾아야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본성품인 대승은 이타행의 자비사상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대승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발취대승(發趣大乘)의 사상을 전해 주고 있다.

불교와 스토아철학 비교 고찰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운주사/ 1만2000원

불교와 스토아철학 모두 자기 삶의 철학을 숙고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도 두 삶의 철학은 실제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을 비교하는 것은 자칫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철학으로서 두 철학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해석하려는 저자의 의도와 기획은 매우 신선하다.

불교, 철학으로 만나다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운주사/ 3만8000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불교철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쓰인 이 책은 중요한 불교경전과 논서를 바탕으로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그야말로 철학적 방식, 즉 비판적, 분석적, 논증적으로 파헤쳐 보인다. 이 책은 본래 대학의 철학과 학부과정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저술되었다. 따라서 때때로 불교의 개념과 이론, 또는 주장을 서양 전통의 관련된 개념 및 이론과 비교한다.

뇌를 통해 깨달음을 이해하다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문일수
운주사/ 2만5000원

불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종교이고, 뇌과학은 뇌와 신경 계통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책은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 즉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뇌과학의 영역이며, 따라서 마음의 뇌과학을 잘 이해하면 마음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불상의 역사 면면을 살피다

한국의 불상/ 배재호/ 경인문화사/ 1만8000원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발간한 〈한국의 불상〉은 한국불교 불상의 역사 면면을 살핀 연구서다. 저자는 한국 불상의 전성기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와 조선시대 17세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8세기가 질적인 전성기라면, 17세기는 양적인 전성기이다. 저자가 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8세기 불상과 최근 10여년 동안 참여한 17세기 불상에 대한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는 이 책 저술의 용기를 준 원동력이 됐다.

책은 '불상의 출현과 한국 불상' '삼국시대 불상 총론'에 이어 고구려 · 백제 · 신라불상을 각각 조명하고 '삼국시대 불상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있다.

日학자들이 정리한 中불교 입문서

중국불교 연구입문/ 오카베 가즈오 · 다나카 료쇼 엮음
박용진 옮김/ 혜안/ 2만8000원

〈중국불교 연구입문〉은 중국불교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 불교학자 18인의 공동 편찬서로 2006년 다이조출판(大藏出版)에서 간행됐고, 한국불교사 전공학자인 박용진 국민대 교수가 국역한 것이다.

이 책은 총론과 각론의 2부, 그리고 본문에 소개된 참고문헌의 편 · 저자 인명을 검색할 수 있는 색인으로 구성돼 있다. 총론은 중국불교의 개요와 특색, 격의와 삼교교섭, 역경 · 경록 · 위경, 돈황의 불교, 대장경의 개판, 중국불교와 주변 제국 등 모두 6장으로 편성돼 중국불교뿐 아니라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 여러 나라의 불교에 대한 연구방법, 경전과 문헌, 지역의 특징 등 불교 연구의 기본사항을 정리했다.

각론에서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한 · 위 · 양진 시대, 남북조시대, 수 · 당시대, 송대와 요 · 금대, 원 · 명 · 청대 등 시대별로 구분해 서술했다.

통일전쟁 후 스님들은 어떤 역할했나

전쟁의 종식과 신라 불교계의 변화/ 박광연
혜안/ 2만6000원

이 책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7세기 들어 늘어난 사찰 수만큼이나 출가자 수가 증가하였던 점에서 출발하여 전쟁의 종식 후 출가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신라 불교계를 어떻게 변화시켜갔을까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 연구서이다.

한국고대사 및 불교사 연구의 중견인 박광연 동국대 교수는 이처럼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나당전쟁에서 신라의 승리에 이어지는 신라사회와 불교계의 변화, 역사의 이면을 이 책에서 밝힌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의 신라 사회를 불교문화의 신라다운 색깔을 찾아가던 시기라고 정의하고, 찬술문헌, 의례, 신앙대상 등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스님들은 종이도 만들었다

조선의 과학기술사/ 이정/ 푸른역사/ 2만2000원

종이는 인쇄술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이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인 정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불씨였다. 세종이 〈자치통감〉 인쇄를 위해 100만 장을 조지서에 배정하며 지장(紙匠)이 아닌 승려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종이를 뜨게 한 것도 종이의 국가적 비중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과거시험을 치르는 유생들이 두껍고 좋은 종이를 고집하자 금령을 내리고 1702년엔 두꺼운 종이를 쓴 장원급제 답안에 대해 왕이 자격을 박탈한 사실에서는 종이가 사회 변화의 한 나침반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지역(紙役)에 시달린 승려들이 절 비우기, 격쟁, 상소 등으로 저항하거나 조선 후기 화전민, 거사, 송상(松商)이 손을 잡고 국경을 넘는 시장을 개척한 사례를 통해 변화의 물결을 보여준다.

한국 승전연구 30년의 결실

한국 불교서사의 세계/ 김승호/ 소명출판/ 7만원

김승호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 불교서사의 세계〉는 그간 저자가 써온 불교문학 관련 글 가운데 불교전기(傳記), 불교설화, 불교소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엮었다.

불교문학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우연히 접한 승전(僧傳)에서 비롯됐다. 승전연구를 계기로 빈약한 불교문학 연구의 실태를 확인한 셈인데 미력이나마 이쪽 연구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30여 년의 연구생활을 요약하자면 불교문학 영역에 속하는 작품, 작가의 발굴, 소개, 그리고 한국 불교문학의 독자성, 미학의 발견을 위한 여정이었다 해도 될 듯하다.

그만큼 책의 분량과 내용은 방대하고 촘촘하다. 불교문학의 개념, 문학사, 양식 분류 등 원론적인 문제들은 물론이요 개별단위의 작품, 작가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다. 한국 불교문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 특히 불교서사 전공자들에게 연구의 선행사례로 참고가 되기 충분하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연말연시, 템플스테이로 몸·마음 힐링 해볼까

문화사업단, 동지 및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전국 30여 사찰서 프로그램 운영
신흥사 등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불멍, 뱅쇼 만들기 등 체험 '다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연말연시는 자칫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 보내기 일쑤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며 새해의 계획을 정리하기에 산사만한 곳도 없다. 올해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설계하는 특별 템플스테이가 전국 사찰에서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이 전국 30여 개 사찰에서 동지 및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동지맞이 템플스테이는 12월 21~22일 용인 법륜사, 강릉 보현사, 경주 골굴사, 봉화 축서사, 구례 천은사에서 열린다. 참회발원 절&좌선명상과 연꽃등 만들기, 사찰안내 및 자율포행, 타종체험, 선무도 수련 등 체험행사와 더불어 새알심 빚어 팥죽쑤기, 동지명상, 팥죽 나눔 행사 등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색다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찰도 있다. 속초 신흥사에서는 '2023 설악의 크리스마스 별빛속으로' 를 주제로 이완명상과 트레킹, 마음 별자리 찾기 명상, 꽃차 명상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진 백련사에서는 추운 겨울 추억에 빠져보는 모닥불 군밤 · 고구마 굽기, 뱅쇼만들기, 다산초당 걷기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영주 희방사에서도 자비명상, 무산 스님의 '마음하나 배우기' , 마음연꽃등 명상, 파도명상, 툇마루 달빛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스님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를 주제로 공주역사문화 탐방, 마곡사 트레킹, 스님과의 차담을 운영한다.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산사에서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도 마련됐다.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전국 24개 사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산 범어사, 부산 내원정사, 광주 무각사, 인천 연등국제선원, 남양주 봉선사, 광명 금강정사, 영월 망경산사, 양양 낙산사, 강릉 보현사, 합천 해인사, 하동 쌍계사, 산청 문수암, 김천 직지사, 성주 자비선사, 봉화 축서사, 경주 골굴사, 경산 선본사, 영주 희방사, 순천 송광사, 구례 천은사, 고흥 능가사, 부안 내소사, 공주 마곡사, 예산 수덕사, 공주 갑사 등이 있다.

각 사찰에서는 한 해 갈무리하기, 2023년 되돌아보며 108배, 언젠가 가겠지 느린우체통 편지쓰기 등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새해맞이 탑돌이, 새해맞이 종등 만들기, 해돋이 보며 소원 빌기, 소원등 달기, 소원염주 만들기, 새해맞이 윷놀이와 떡국 먹기, 새해 다짐 발원문쓰기, 새해 덕담 나누기, 타종식, 소원돌멩이 쓰기 등 새해 희망을 서원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천년고찰 송광사는 망수봉에서, 김천 직지사는 명적암에서, 합천 해인사는 심원사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갑진년 새해는 행운을 준다고 알려진 청룡의 해인 만큼 활기차고 뜻깊은 나날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고요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중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동지 및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는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권역	사찰명(지역)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참여 가능 연령대
강원도	신흥사 (속초시)	2023 설악의 크리스마스 *별빛 속으로*	이완명상 / 트레킹(자율산책) / 마음 별자리 찾기 명상 / 아침 · 저녁먹기 명상 / 꽃차명상	12.24~25	초중고생 및 성인 010-4179-7994
	백담사 (인제군)	제16회 "나혼자 간다."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	자기마음 찾기 / 마음연꽃등 만들기 / 자비명상 및 숲포행 / 좌선 및 108배-싱잉볼 명상 / 차담 및 크리스마스 행사 / 차당-무산스님의 '마음하나'배우기	12.23~25 (2박3일)	성인 033-462-5565 010-8978-5035
	낙산사 (양양군)	크리스마트 특별 아득한성자 템플스테이	사찰탐방 및 사물체험 / 요가형108배 / 파도명상 / 마음연꽃등 명상 / 연꽃등 트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등	12.23~25 (2박3일)	성인,대학생,중고생 033-672-2417
경북	희방사 (영주시)	하이얀 크리스마스	노란편지지 / 선물만들기(나무찻잔 받침) / 툇마루 달빛명상 / 난로에 군고구마 / 스님과의 차명상	12.23~25 (2박3일)	누구나 054-632-5077
전남	백련사 (강진군)	솔로, 크리스마스에 팥죽 먹으러 절에 가자~	타종체험 /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 / 모닥불-군밤.군고구 마 굽기 / 뱅쇼만들기 / 다산초당 걷기명상 / 이야기 나누기	12.24~25	성인 010-5831-0837 061-434-0837
충남	한국문화연수원 (공주시)	스님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템플과 크리스마스)	공주역사문화 탐방 (공산성,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 견학) / 스님과의 차담(스님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 불멍 / 숲길명상(마곡사 트래킹)	12.24~25	초중고생 및 성인 041-841-9039

■ 2024년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권역	사찰명 (지역)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 일자	참여 가능 연령대
부산시	범어사	2024년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사찰안내 / 민화그리기 / 타종식 체험 / 새해맞이 / 명상 / 차담	12.31~1.1 [마감]	초중고생 및 성인 051-508-5726
	내원정사	2024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새해 소원문 작성 / 새해맞이 종등 만들기 / 108배 / 숲 산책	12.31~1.1	내국인 및 외국인 051-254-3503
광주시	무각사	특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걷기명상 / 108배 절명상 / 518공원 포행 및 해맞이 / 스님과의 차담	12.31~1.1	성인 및 중고생 062-383-0107
인천시	연등국제선원 (강화군)	2024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참선명상 / 포행 / 스님과의 차담 / 해넘이 보기 / 촛불명상 / 타종식 및 신년법회 / 새해 일출맞이 / 새해 덕담 나누기	12.30~1.1 (2박3일)	성인 및 중고생 032-937-7033
경기도	봉선사 (남양주시)	2024년 새해맞이 타종식 템플스테이	윷놀이 / 새해 소원문 작성 / 새해맞이 타종식 / 숲산책 / 스님과의 차담	12.31~1.1	미취학~성인 010-5262-9969
	금강정사 (광명시)	2024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마무리명상 및 소원돌멩이쓰기 / 지난 한해 갈무리하기(모닥불) / 새해 새벽예불 및 행복초 공양 / 해맞이 행사 / 떡국 공양 / 새해 첫 날 다짐 발원문 쓰기	12.31~1.1	초중고생 및 성인 02-898-8200
강원도	망경산사 (영월군)	2024 새해 맞이 템플스테이	2023년 되돌아 보며 108배 / 2023년 지는 해 바라보기 / 2024년 새해 맞이(일출) / 떡국 공양	12.30~1.1 (2박3일)	성인(초중고생 예약은 사전문의) 033-374-8007
	낙산사 (양양군)	새해맞이 특별 아득한성자 템플스테이	탑돌이 및 타종식 / 새해 일출맞이 / 소리명상 / 윷놀이 / 새해 떡국공양 / 마음연꽃등 명상 / 새해 희망나누기 / 요가형 108배 / 사찰탐방 등	12.30~1.1 (2박3일)	성인,대학생,중고생 033-672-2417
	보현사 (강릉시)	가는해 오는해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타종 및 산사의 해맞이 / 108배 / 차담 / 명상 / 연꽃등만들기	12.31~1.1	성인 및 중고생 033-647-9455
경남	해인사 (합천군)	2024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소원을 말해봐"	108배 소원염주만들기 / 소원등 달기 / 1일 심원사에서 새해 일출보기 / 장경판전 참관	12.31~1.1	성인, 학생 055-934-3110
	쌍계사 (하동군)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사찰예절 / 스님과의 차담 / 남도대교 해맞이 / 암자순례	12.31~1.1	초중고생 및 성인 010-6399-1901
	문수암 (산청군)	2024년 지리산에서 해맞이 템플스테이	지리산 탐방 해맞이 행사 참여 / 윷놀이 / 스님과의 차담	12.31~1.1	내국인 누구나 010-8853-5820
경북	직지사 (김천시)	2024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108배 및 108염주 만들기 / 소원등 달기 / 명적암에서의 일출맞이	12.22~1.14	내국인, 외국인 010-6356-6084
	자비선사 (성주군)	2024년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차명상 / 타종 예불 및 신년법회 / 해맞이 등반	12.31~1.1	초중고생 및 성인 054-931-8874
	축서사 (봉화군)	2024년 새해맞이 대광명 희망설계 템플스테이	타종체험 / 탑돌이 및 새해소원기도 / 제야의 타종 / 108배 / 떡국공양 / 자유명상	12.31~1.1	성인 및 중고생 054-673-9962
	골굴사 (경주시)	2024년 골굴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선무도 공연관람 / 선무도 수련 / 108배 / 제야의 종 / 동해안 해맞이	12.31~1.1	미취학~성인 054-775-1689/ 744-1689(회계)
	선본사 (경산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 소원을 말해봐 !!	사찰안내 / 갓바위 부처님 참배 / 종각에서 일출보기 / 석탑 둘러보기 * 소원연등 만들기-새해맞이 타종-스님과의 차담: 추가접수	12.31~1.1	미취학~성인 010-2631-1868
	희방사 (영주시)	2024 해맞이 템플스테이 "돌도 뜨고, 해도 뜨고"	언젠가 가겠지(느린우체통) 편지쓰기 / 난로에 군고구마 / 새해소원木 / 마당에서 해맞이	12.30~1.1 (2박3일)	내국인, 지역주민 054-632-5077
전남	송광사 (순천시)	2024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망수봉으로 올라가 해맞이 / 새해맞이 기원법회 / 불일암, 광원암 참배	12.31~1.1	초중고생 및 성인 061-755-5350
	천은사 (구례군)	새해맞이 희망 템플스테이	제야의 종 타종 / 떡국공양 / 새해다짐 108배(자율)	12.31~1.1	성인(동반 중고, 초등학생) 010-3613-4801
	능가사 (고흥군)	2024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범종체험 / 스님과의 차담 / 해돋이	12.31~1.1	초중고생 및 성인 061-832-8091 / 010-9195-8091
전북	내소사 (부안군)	2023 해넘이, 2024 해맞이 템플스테이	나에게 쓰는 편지 / 합장주 / 108배 염주만들기 / 떡국공양 / 타종식 행사 / 해맞이 / 차명상	12.30~1.1	내국인 063-583-3035
충남	마곡사 (공주시)	2024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타종식 / 탑돌이 소원초 / 108배 / 해맞이 걷기 명상 / 차담	12.31~1.1	성인 및 중고생 041-841-6226
	수덕사 (예산군)	2024 해맞이 템플스테이	성불도놀이 / 스님과 차담 / 해맞이 포행 / 타종체험	12.31~1.1	성인 및 중고생 041-330-7789
	갑사 (공주시)	2024년 갑진년 새해맞이 쉼자리 템플스테이	보물투어(사찰안내 / 타종체험 / 예불체험 / 스님과의 차담 / 암자산책 / 108여의보주 체험	12.30~1.1 (2박3일)	성인 041-857-8921

선(禪)을 알면 불교가 선명해지고
불교를 알면 삶이 만만해진다!

최고의 에세이스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선의 모든 것,
2,600년 광대한 불교와 선종의 역사를 단숨에 읽어내다

출가 후 40년,
보경 스님의 수행과
공부를 정리한 책
촘촘한 안목과
노련한 글 솜씨로
선의 지도를 그리다

"만약 책 한 권으로
불교와 선종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불교와 선종의 공부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이는 나의 오랜 갈망이기도 하다."
- 서문 중에서



고대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선종의 장대한 사상 전개

에세이 선종사
禪宗史

보경 지음 | 양장본
504쪽 | 3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명작 미술로 읽는 색다른 '붓다의 생애'

탄생·사유·수행·깨침·전법·열반…
깨달음의 여정을 생생한 체험으로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 갇혔던 괴로움이 사그라진다!

우리가 꼭 가야 할 성지 베스트 8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



"붓다의 생애는 '고(苦)'라는 실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다. 성지 속 붓다의 족적을 따라가며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자."
- 본문 중에서

청화 강소연 지음
432쪽 | 35,000원

백금남 소설 # 아디카야의 검 46 아디카야의 눈물 1



▶한줄 요약
이석원은 숨을 거두고, 그가 남긴 바랑에는 '아디카야의 검'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패엽경이 있었다. "여기 칼이 있도다"

"여기 아디카야 칼이 있도다"

-무슨 말이야? 윤회관을 인정한다는 말이야 부정한다는 말이야?

심 작가였다. 그가 정말 헷갈린다는 듯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어금니를 씹으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윤회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늬? 난타의 업장이 만들어낸 무늬? 그 무늬가 오늘의 이석원을 만들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다음 말을 씹어 뱉었다.

-뒤쪽 선반 위를 봐. 거기 바랑이 있을 테니.

돌아서서 올려다보자 선반이 머리 위에 있었다. 약병 나부랭이와 헝겊들…. 거기 바랑 하나가 보였다. 내가 그 바랑을 내렸다. 바랑을 열자 먼저 법복 한 벌이 눈에 띄었다. 많이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넣어 놓은 것이어서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뒤이어 내복 한 벌이 나왔고 치약, 칫솔, 비누통 그리고 잡다한 종이 뭉치가 나왔다. 종이 뭉치를 빼내던 나는 멈칫했다. 보통 종이가 아니었다. 패엽(Pattra)?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차 대구 동화사(桐華寺)나 영월 법흥사(法興寺)에 보관된 패엽경을 본 적이 있었다. 법흥사의 패엽경이 유독 시선을 끌었었다. 그 경은 단 한 장이었고 앞뒤로 범어가 쓰여 있었다. 금강산 마하연사(摩訶衍寺)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었다. 광복 후 행방이 묘연했는데 부산의 한 스님이 신도한테 얻어 법흥사에 봉안한 것이었다. 패엽의 감촉이 썩은 나무 둥걸을 만지는 것 같았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져 버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쳤다.

오오스마 기자가 재빠르게 배낭에서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다 깔았다.

-어리석을 사람들,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렇게 말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

-제기랄!

심 작가가 물기 젖은 눈으로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팔뚝에 얹혀 있던 피 흘리던 그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몰랐다. 가까이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움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이미 숨을 멈춘 뒤였다. 들것에 늘려나가면서도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네 사람은 산자락으로 나왔다. 하나 같이 허탈한 낯빛이었다.

-아무리 버려진 곳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쩝 혀를 찼다. 적당한 자리에 배낭을 벗어 놓고 그 위에다 놓았다. 보자기를 풀자 너비가 2인치 정도, 길이 1자쯤 되는 장방형의 패엽이 나왔다. 가운데 일정한 간격으로 뚫린 작은 구멍이 두 개 보였다. 끈으로 꿴 자리 같았다. 끈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흐트러진 것은 아니었다. 첫 장에는 어떤 글자도 없었다. 협판 표면에 장식을 넣을 듯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맨 위 장을 들어내 곁에 놓고 두 번째 장을 보았다. 역시 빛이 바랠 대로 바랬다. 어떤 글자가 보였다. 희미했다. 송곳이나 칼로 파내고 거기에다 죽필로 검은색을 입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게 바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ऐडकय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팔어입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보고 있다가 말했다. 내가 다시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부처님은 네팔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디카야란 말 같은데요.

-아디카야?

오오스마 기자의 말을 내가 되뇌었다

-법의 칼이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칼이라는 뜻이지요. 본말은 아디(Aid)와 카야(akaya). 말뜻은 '강한데 순수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법, 그 법만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원뜻은 다르마카야입니다. 취모리검(吹毛利劍)!

오오스마 기자가 말하며 한 장을 넘겼다.

यहा छुरी छ।

-예하 치미 처?

무슨 말이냐는 듯이 모두의 시선이 오오스마 기자의 입에 쏠렸다.

-여기 칼이 있도다?

오오스마 기자가 중얼거리다가 눈을 번뜩이며 다음 장을 넘겼다.

Mātaraṁ pitaraṁ hanrva
rājāno dve ca khattiye
raṭṭaṁ sānucaraṁ hanrva
anigho yāti brāhmaṇo.

오오스마 기자가 침을 꼴깍 삼키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마따랑 빠따랑 한뜨와 라자르 드웨 짜 캇띠에 랏탕 싸누짜랑 한뜨와 아니고 야띠 브라흐마노.

오오스마 기자가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여기 아디카야 칼이 있도다. 부모를 죽이고 두 임금을 다 죽이며 왕국과 집착을 파괴한 브라흐마노는 모든 둑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무섭군요!

심 작가가 듣고 있다가 느껴지는 게 있는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런 말 같습니다. 갈망과 교만을 모두 죽이고 상견과 단견을 다 죽이며 여섯 가지 감각의 왕국과 십이처를 파괴한 붓다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오오스마 기자가 말하고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다.

-불멸 후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것 같군요. 빠알리어는 본시 문자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로 암송되던 것이었으니…. 로마 알파벳으로 음사된 것으로 보아 후대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삽화 · 김상규

패엽 밑에서 얇은 비단이 나왔다. 무엇일까 하고 보았더니 그림이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이었다. 아디카야? 그 뒤에 붓다의 모습이 있었다. 일반 절에 모셔진 풍만하고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고행을 해서 살이라고는 없었다. 뼈만 남은 모습이었다. 함정처럼 깊어 보이는 눈. 드러난 핏줄들. 갈비뼈가 어둠 속에 드러난 쇠창살 같았다. 광배에서 일어나는 광휘가 눈부셨다.

-이건 이석원이 그려서 지니고 다닌 것 같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돌아오는 길

심 작가가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열어 술병을 꺼내놓았다. 병원 한 켠에 매점이 있는 걸 보고는 몇 병 사서 넣은 것이었다. 그가 병마개를 따면서 풀썩 웃었다.

-나도 참 속물인가 봐. 술을 사면서도 행여 병균이 묻었으면 어쩌나 하고 있었으니.

말없이 술을 들이키다가 오오스마 기자가 그제야, '감상이 어째 그렇지?' 하고 심 작가에게 물었다. '말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심 작가가 말했다.

-무서운 일이야. 죽어가면서 하던 그의 말.

심 작가가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멋쩍은지 풀썩 웃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거짓이 판을 치고 위선이 판을 치고…. 어쩌면 그래서 그가 온 것인지도 모르지요.

나는 말해 놓고 너무 단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흘끗 주위의 시선을 살폈다.

오오스마 기자가 갑자기 술잔을 놓으며 이상스러운 냉소를 물었다.

-허망해요. 그가 난타라고 하자고요. 전생에 이 땅에 와 살다가 그렇게 갔는데 다시 온 이석원은 무엇인가? 기껏해야 부처 모습이나 그리는 그림쟁이? 허허 참 전생에 그렇게 살았다면 좀 더 큰일을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하하하고 웃었다.

-그럼 인도의 간디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돼야 하는가요?

-그렇잖습니까. 응보의 차원에서라도….

-그럴까요? 어쩌면 그것이 윤회의 본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유치원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없어 방편 교설을 한 죄. 극락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緣起)의 법칙, 이거 너무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보아낸 삶. 그게 대통령의 삶보다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순된 세계를 모순되게 사는 것. 진리를 보려면 진리의 목을 쳐야한다는 말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는 말인가!

심 작가가 오오스마 기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 술을 홀랑 입속으로 쏟아 넣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자 씁쓸한 자괴심이 단내가 되어 입가에서 맴돌았다. 무엇일까? 정작 살아 이 세상을 그려야 할 사람은 그렇게 갔다. 오로지 중요한 건 진리뿐이라고 외치며. 부처의 모습이 일어나면 베어내고 또 베어내면서 그가 보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술을 입속으로 쏟아 부었다. 문득 눈높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생각이 몸을 곧추세웠다. 진리와 현실, 번뇌의 속세. 두견새 우는 진흙바닥.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려내는 어떤 것도 절대일 수는 없다. 절대의 경지에서 표출되는 진리 그 자체의 상태는 아니다. 이석원이 찢고 깨려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오늘도 쉴 새 없이 사고의 구술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타인의 가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위악성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그렇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이석원적 번뇌를 지고 자신의 행위 속에서 참공양의 실천적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깨달으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진리를 버리지 않고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이 모순의 꼬라지들. 그럼 그것을 쳐 없애 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모순마저도 쳐 없앴을 때 그것은 풍광(風光)이 될까? 그럴까?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흔들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왔다. 어슬어슬 한기가 들고 이상스런 공포가 밀려들었다. 돌부리에 채이고 넘어지면서 마을로 내려와 차를 탔다.

이곳까지 와 무엇을 한 것일까? 세세생생이란 말이 눈물처럼 가슴에 와 매달렸다. 한 사내의 처절한 몸부림. 오늘에 이르러 붓다의 모습을 완전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업보로 남았다면 삼세를 윤회하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어느 한순간 심 작가가 고개를 홰홰 내저었다.

-정말 감상이 지랄 같구만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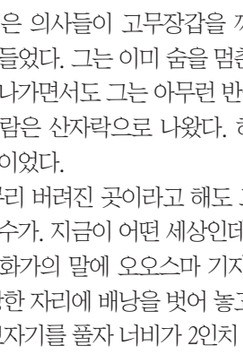
섣부른 감상을 날려버리듯 차는 덜컹거리며 잘도 달렸다. 산등성이의 꽃들이 낙화처럼 바람에 휘날렸다. 꽃 무더기를 보고 있자니 그가 내뱉던 말이 떠올랐다. 진리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 그것은 모순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실상을 깨닫기 위해 그 모순을 쳐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모순을 쳐 없애는 것, 그것이 풍광일 것이다. 모순된 세상을 모순되게 사는 것. 우리는 그 진리의 풍광 속에서 오로지 선을 호위하며 격렬하게 악을 응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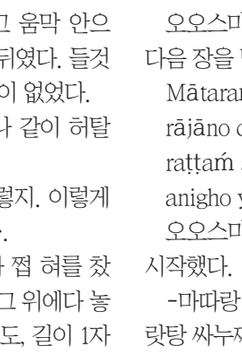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삶보다 더 먼 시원의 끝, 그곳을 향해 금빛 몸체를 흔들며 가고 있을까? 그 시원의 끝에 누가 있을까? 어둠 속에서 청정한 자성(自性)의 꽃을 피워 불이(不二)의 세계를 열었던 그이가 있을까?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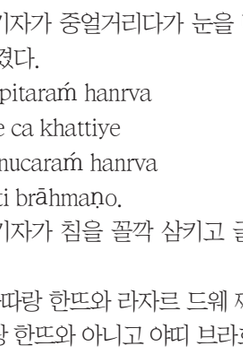
甲辰年 용수사 족자 특별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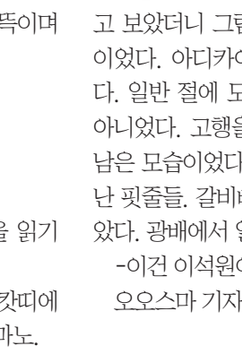
장수와건강 그리고 가정화합을 추구하는
저렴하고 깔끔한 고급 족자

크기 – 가로 42cm x 세로 60cm


두루미 1호


연꽃 2호


봉우리 3호


봉우리 4호

▮ 예금주 815040-56-082912 김억찬 (농협)
▮ 예금주 61233-02-034009 용수사 (우체국)

가격 상담 절충

*출고된 작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작품배송 일정은 7~15일 소요됩니다
*작품의 이익금은 재소자의 교정을 위하고 불우이웃을 도우며 사찰의 증축을 위하고자합니다.

1996-9-1 법무부 위촉 청송제2교도소 교정위원
2000-6-15 법무부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패(제193호)
2000-7-6 법무부장관 표창장(제39066호)
2003-9-1 법무부 의촉 경주교도소 교정위원
2005-3-3 경주교도소장 감사패
2008-10-30 법무부장관 표창장(제39066호)
2012-2-9 경주교도소장 표창패(제2012-3호)
2021-10-01-2024-9-30-법무부장관-현교정위원

용수사 010-6365-8780 / 010-9612-1022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㉓ 깨달음 명상, 영원한 행복에 대하여



▶한줄 요약
간화선과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스트레스와 우울 등 괴로움을 일으키는 일체의 번뇌망상을 비우고 비워서 청정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내가 있다'는 근본 망상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것이다.

매일 매일 수행…참된 불자 되는 길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이 깨친 중도와 한국 화두선 명상의 가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우고, 화두선이든 호흡명상이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생활화해 나가면 마음이 밝아지고 고요해져 나날이 좋은날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치유 명상과 깨달음 명상

세계적인 명상 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명상 수련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참선 명상에 대한 정견을 세워야 한다. 참선 명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나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건강을 위한 치유 명상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MBSR, MBCT 등이 이런 치유 명상에 속한다. 스트레스 감소와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치유 명상은 현대인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치유 명상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화되고 프로그램화되어 대학 병원과 심리상담사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치유 명상은 귀중한 선물이다. 알콜이나 약물에 의지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을 해소하다가 명상을 익혀서 스스로 자기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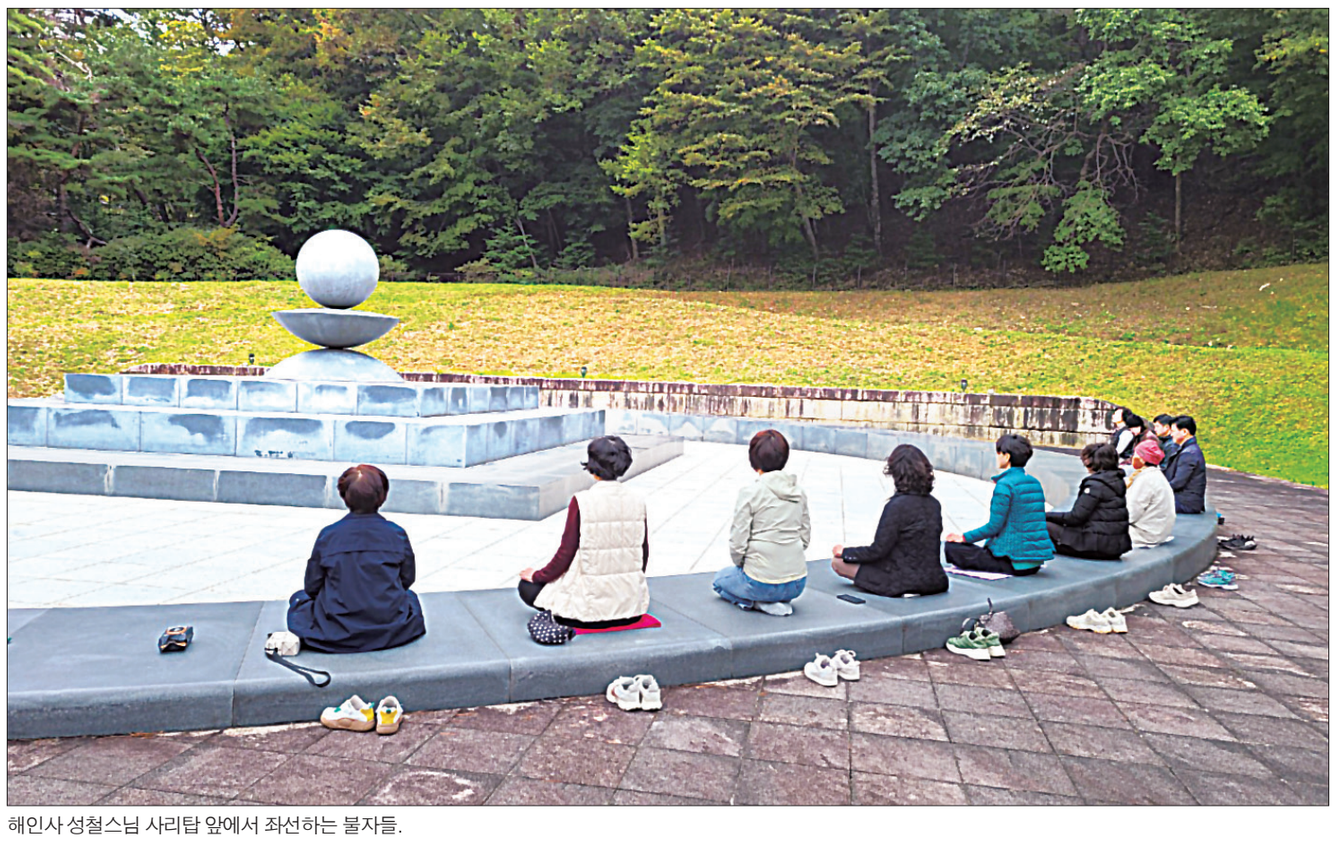
그런데 불교의 근본 중도에서 보면 이러한 치유 명상도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인가? 치유 명상은 '내가 있다'는 유아(有我)의 입장에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에 목적이 있다. 내가 겪는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 우울을 명상으로 치유하여 심신의 건강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있다'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삶의 괴로움을 비롯하여 늙음과 병, 죽음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치유 명상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치유 명상은 일시적인 행복을 위한 명상이라 하겠다.

둘째, 생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깨달음 명상이 바로 불교의 간화선과 위빠사나(사마타) 참선 명상이다. 북방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의 위빠사나는 화두에 집중하느냐, 호흡에 집중하느냐 하는 방법만 다르지 중도 삼매를 체험하는 원리는 같다. 우리 마음을 화두에 집중하여 일체의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이 화두선, 간화선이다. 위빠사나(사마타)도 호흡에 집중하여 번뇌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간화선이 좋으니 위빠사나가 좋으니 분별하지 말고 인연이 되는대로 하나를 정해서 부지런히 생활화하는 것이 최고다.

간화선과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스트레스와 우울 등 괴로움을 일으키는 일체의 번뇌망상을 비우고 비워서 청정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내가 있다'는 근본 망상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치유 명상과는 차원이 다른 명상이다. 깨달음 명상과 치유 명상은 명상하는 자세나 방법이 비슷하게 보여도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깨달음 명상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그러므로 깨달음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하는 일체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니 치유 명상의 효과도 누리면서 죽음의 괴로움마저 영원히 벗어나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상이라 하겠다. 부처님이 깨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인류문명사에서 최고의 선물이다. 밖으로 하나님이나 절대신에 의지하지 않고, 알콜이나 약물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마음을 바르게 닦아 초조 불안 등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해인사 성철스님 사리탑 앞에서 좌선하는 불자들.

간화선vs위빠사나 분별 말고
인연따라 생활화하는 게 최고
하루 5분 좌선과 공부로 시작
마침내 영원한 행복 가는 길



고양 흥국사 흥국선원에서 좌선 명상하는 불자들.

중도 정견이 확고해야 마구니 장애도 극복한다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선물, 깨달음 명상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길이지만, 이 길을 바르게 가려면 불교를 공부해서 정견(正見)을 세우고 해야 한다. 이것이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이 깨달음의 길에 대하여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조사어록에는 서로 모순되거나 사유로서는 알 수 없는 파격으로 가득하니 참으로 공부하기가 어렵다.

까닭에 불교 교단과 지도자들은 불교 명상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쉽게 불교를 이해하여 정견을 세우고 참선 명상 수행하도록 바르게 안내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선문(禪門)에서는 바른 선지식을 만나라 한다. 가까이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경전과 조사어록을 선지식으로 삼아 정견을 세우고 참선 명상을 해야 한다.

만약 정견을 갖추지 않고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공부 중에 여러 가지 역경계와 순경계, 혼침과 산란, 신비한 마구니 경계를 만나 바른 깨달음으로 가기가 어렵다. 특히 마구니 경계에 주의해야 한다. 참선 명상에 입문하여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망상이 쉬어지면서 의식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때 무심코 신비한 어떤 경계가 나타날 수 있다.

불교에 정견이 서있지 못하면 이런 신비한 경계에 집착하게 되어 우리 마음에 작난(作亂)이 일어난다. 필자의 경우 황금빛 불덩이가 눈앞에 나타나는 신비한 경계를 만난 적이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신비한 경계를 공부가 잘 되어서 나타나는 경계로 착각해서 머물거나 안주하게 되면 마구니가 되어 온갖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 이러한 마구니 경계에 휘둘리어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져 마구니 행각을 하거나 외도로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다. 참으로 경계해야 한다.

화두선이든 호흡 명상이든 어떤 경우든지 화두나 호흡에 의식이 집중하여 또렷또렷하게 화두나 호흡에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화두나 호흡을 놓쳐버리면 이런 신비한 경계가 나타나 마치 그것이 공부를 잘해서 나타난 경계인줄 착각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깨달음 명상을 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불교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고 해야 한다.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연기(中道緣起), 무아(無我)라는 정견이 확고해야 참선 명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 마침내 깨달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루 5분 참선명상으로 시작하자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이다. 생사의 괴로움을 멈추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깨달음 명상도 하루 5분 좌선으로 시작해보자. 매일 5분 규칙적으로 좌선 명상을 하면서 선지식의 경전과 선어록 법문을 듣고 공부하여 정견을 세워나가자. 그렇게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참선 명상을 통해서 체험하고 실천해 나가면 마침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꼭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정견을 세우고 참선 명상을 생활화해 나간다면 공부한 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며 행복해진다.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우리는 누구나 지은대로 받는다.

부처님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모진 고행(苦行)도 중단하고 마침내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면 누구나 영원한 행복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 밝혀서 저 하늘의 태양처럼 환해지면 일상생활이 그대로 밝아지고 편안해져 수행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이런 이가 바로 생활 수행자이고 진정한 부처님 제자이다.

이렇게 정견을 세우고 생활에서 수행하는 불자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지혜와 힘이 나온다.〈끝〉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24 강화 전등사, 순천 정혜사 불단의 용(龍)



▶ 한줄 요약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과 순천 정혜사 대웅전 불단의 용면 목조각이 구성과 조형미가 뛰어난 으뜸 조형으로 손꼽힌다.

龍, 물의 상징조형이자 청정국토 수호력

용은 물 에너지, 봉황은 바람 에너지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신화의 세계〉 등의 저서에서 "신은 에너지의 의인화다"라는 명제로 신화에 접근하고 해석했다. "신이란 삶과 우주 만유에 작용하는 근원적 에너지나 가치체계를 의인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명제는 한국산사 장엄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 봉황 등의 상상 속 서수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단군신화〉에 보면 환웅은 우사(雨師), 운사(雲師), 풍백(風伯)을 포함해 30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홍익인간의 뜻을 펼친다. 우사, 운사, 풍백은 비, 구름, 바람의 상징이다. 변화무쌍한 우주의 에너지를 인격화한 것이다. 그 에너지 셋은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인 힘에 가깝다.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장세계품'을 보면 모든 세계의 성립과 바탕에는 풍륜과 수륜이 있다. 바람과 물의 순환하는 에너지 속에서 세계가 일어나고 성립한다. 세계의 맨 아래는 풍륜이 있고 그 위에 수륜인 향수해가 있다. 향수해 위에 한 송이 커다란 연꽃이 피었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있다. 연꽃 속에 함장되어 있는 불국토이기에 '연화장세계'라 부른다. 연화장세계는 풍륜-수륜-대연화-불국토의 중중무진의 구조로 펼쳐있는 광대무변의 세계다. 세계를 구성하는 바탕에 바람과 물을 뒀다. 바람과 물의 본성은 변화무쌍과 순환으로 압축된다. 순환과 대류, 회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두 물리적 힘이 가진 변화무쌍, 순환, 대류, 나선형 회전, 생명에너지에 의해 만유는 생명력을 획득한다. 물과 바람은 모든 국토와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원적인 생명에너지이다.

용과 봉황은 그 두 에너지의 구상화 또는 의인화로 이해된다. 용(龍)은 물 에너지, 봉황(鳳凰)은 바람 에너지의 상징으로 적극 해석할 수 있다. 용과 봉황을 에너지 개념으로 해석한 특별한 벽화는 대구 동화사 영산전 박공 천정에 있다. 표현주의 기법으로 두 조형에 깃든 정신적 에너지를 그린 수작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화재를 막는 부적'이라는 독특한 종이가 있다. 2001년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 때 발견 된 것이다. '수(水)'자 한 자를 크게 적은 붉은색 장지였다. 용을 그린 부적 1장, 모서리마다 '水'를 새긴 화재 막는 육각형 은판 5점 등과 함께 발견됐다. 붉은색 장지의 '水'자는 놀랍게도 '용(龍)' 1000여 자로 채웠다. 이 놀라운 부적은 용의 본질을 확인시켜 준다. 하나의 부적 세트로 발견된 이 유물들은 용이 곧 물의 상징임을 실증한다. 육각형과 용은 하나의 본질을 가진 조형언어의 변상일 따름이다.

용의 본질이 만유 생명력의 근원인 물의 상징이라면 봉황(鳳凰)의 본질은 무엇인가? 봉황의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이다. 중국 신화에서 바람은 봉새, 즉 봉황 '봉'의 날갯짓으로 생긴다고 여겼다. 갑골문에서 '봉(鳳)'은 바람 '풍(風)'과 같은 의미였다. '봉(鳳)'과 '풍(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几)'는 원래 맞바람을 잔뜩 받은 돛의 형상에서 만든 상형문자다. 획에 벌써 바람 에너지가 뱄다. 활짝 편 조류의 날개 이미지는 바람과 잘 상통한다. 봉황 조형의 본질은 바람이다.

법당, 용-연꽃-봉황의 중층적 입체구성

다시 〈화엄경〉의 '화장세계'를 떠올리자. 불국토는 바람과 물과 연꽃의 중중무진 속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불국토 장엄에서 바람과 물과 연꽃은 특별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바람의 구상화가 봉황이다. 물은 용으로 의인화했다. 연꽃은 현실의 것과 다르게 넝쿨을 갖춘 형식으로 재해석했다. 우연히 피는 꽃은 없기 때문이다. 숱한 서원과 공덕으로 꽃이 핀다. 넝쿨 조형엔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 곧 수행과 실천이 담겨 있다. 봉황과 용과 넝쿨 갖춘 연꽃, 이 셋은 한국산사 불국토 장엄에서 핵심적인 소재로서 모든 법당 장엄에 빠짐없이 활용된다. 법당의 지붕 하중을 받치고 있는 공포(栱包)를 보면 온통 넝쿨 갖춘 연꽃과 용, 봉황의 조합이다. 특히 어간의 주심포는 대부분이 용-연꽃-봉황의 중중(重重)으로 구성하는 일관된 조형문법 구조를 보여준다. 무주 안국사 극락전 어간 기둥의 주심포는 그런 구성의 하나의 정형으로 손꼽을 수 있다. 중중의 구조에는 물(용)-땅(연꽃)-하늘(봉황)에 대응하는 위상학적 조형 질서가 구현돼 있다. 용-연꽃-봉황의 중층적 입체구성은 백제예술의 극치로 평가되는 '백제금동대향로'에서도 실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용과 연꽃은 특별히 한국산사 불전건물 장엄에서 시작과 끝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둘은 같은 속성을 지녔다. 두 조형 모두 물과 불가분이다. 용과 연꽃은 유기적 일체로 조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보편적인 조형원리가 용이 연꽃 가지를 입에 물고 있는 형식이다. 이때 용은 용의 정면 얼굴만을 조각한 '용면(龍面)'으로 표현한다.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순천 정혜사 대웅전, 경산 환성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원통전, 순천 동화사 대웅전의 불단 등에서 두루 살필 수 있다. 그중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과 순천 정혜사 대웅전 불단의 용면 목조각이 구성과 조형미가 뛰어난 으뜸 조형으로 손꼽힌다. 전등사 불단의 용면 조형은 불단 정면에 12개체, 좌우에 5개체씩, 모두 22개체다. 순천 정혜사 대웅전 불단에선 정면 9칸에만 용면을 조각했다. 두 곳의 용면 조형은 형태나 구성, 표정 등 여러 측면에서 닮은 분위기다. 용들은 입에 꽃가지와 식물 넝쿨을 물고 있다. 몇몇의 용이마에는 먹으로 쓴 '왕(王)' 글자가 선연하다. 용의 표정은 천차만별이다. 근엄한 표정도 있고,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용, 가면처럼 보이는 용, 심지어는 혀를 내밀어 '메롱' 하며 놀리는 듯한 용도 있다. 정혜사 조형에선 혀를 자신의 콧구멍에 밀어 넣는 못 말리는 용도 있다. 더욱이 정혜사 불단 가운데의 세 용면은 파격적이다. 머리 양쪽에 꽃을 꽂고 활짝 웃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유쾌한 익살에 법당에서의 긴장을 무장해제 당하기 십상이다. 용들의 졸업 앨범 사진을 보듯 표정에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있다. 두 곳 불단의 용 조형은 힘과 위엄, 익살, 낭만성까지 두루 갖춘 한국산사 용면 조형의 명작으로 손색이 없다.

용면과 꽃가지의 결합 형식은 용 전신 조각과는 사뭇 다르다. 용면은 한 곳을 응시하는 방위 주시 성향이 강하다. 그에 비해 용의 전신 조형에는 용틀임하며 차원을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용틀임하는 용은 꽃가지를 입에 물지 않는다. 꽃가지 대신 여의보주를 배치하기 마련이다. 붉은 여의보주는 궁극적 깨달음과 상통한다. 보주를 획득하는 순간 용은 자유자재의 변화무쌍한 능력을 갖추고 청정 불국토를 수호하는 강력한 위신력으로 마장을 압도한다.

반면에 꽃가지를 입에 물고 있는 용면 조형은 역신을 막는 처용의 얼굴처럼 벽사적 성격이 강하다. 용면과 연꽃은 하나가 주어 위치에 놓이면 다른 하나는 서술어 역할을 한다. 만약 용이 연꽃이나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다면 '용은 물이다'라는 명제를 조형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 이때는 용이 주어 개념이고, 연꽃이 보조관념이다. 그런데 용이 연꽃을 물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용의 입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때때로 보은 법주사 팔상전 포벽의 화반처럼 용의 입에 수생식물 연꽃 대신 넝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용의 입에서 나와 좌우로 칭칭 감겨 뻗어나가는 넝쿨 이미지는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워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용의 입에서 연꽃이나 넝쿨이 나오는 것은 생명력의 근원인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원리를 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입에 물고기 문 용, 화마에 대한 벽사

어떤 곳엔 용의 본질을 환기시켜 주는 보조관념을 파격적인 소재로 대체하기도 한다. 연꽃 대신 물고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거나 용의 입에 물고기가 드나드는 대단히 인상적인 조형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고기 조형은 용의 본질이 물임을 일깨워주는 데 있어 보다 직관적이다. 그만큼 물의 기운이 증폭된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충량의 용, 나주 불회사 대웅전 충량의 용, 문경 대승사 대웅전 추녀와 경주 불국사 대웅전 추녀의 용, 양산 통도사 만세루 어간 기둥의 용, 괴산 각연사 대웅전 내부 화반, 안성 청룡사 관음전이나 영광 불갑사 만세루 포벽 화반 등의 용면은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다. 목조건축에서 왜 처처마다 용면을 조각하여 물의 기운을 분수처럼 내뿜는 것일까? 그 같은 조형에는 강력한 물의 기운으로 목조건축과 상극인 불의 정신을 살(殺)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양한 용면 조형은 화마로부터 법당을 수호하는 벽사의 물리력 그 자체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용의 해다. 지면에 용의 기운을 채우며 연재의 붓을 삼가 거둔다.〈끝〉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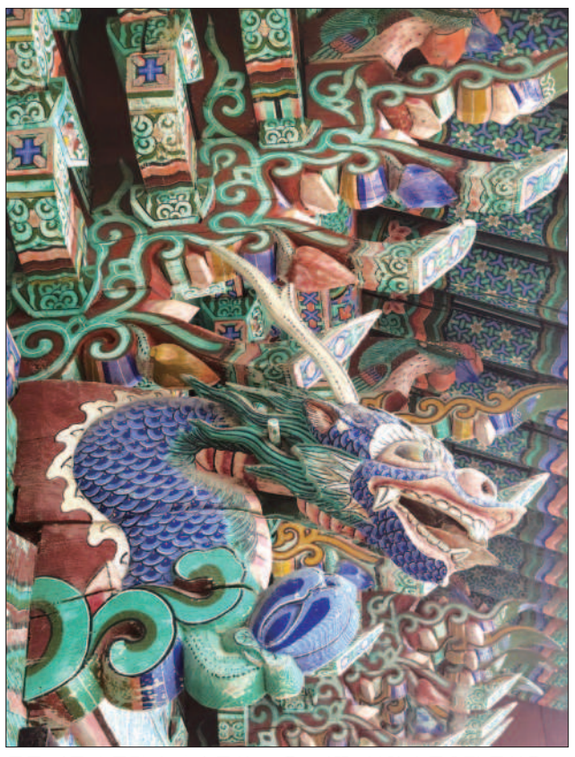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불단의 용면.



순천 정혜사 대웅전 불단의 용면.



왼쪽부터 보은 법주사 팔상전 화반의 용면,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충량의 용, 경주 불국사 대웅전 추녀의 용. 모두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다.



무주 안국사 극락전 어간 주심포. 용-연꽃-봉황의 중층적 구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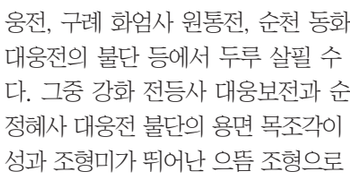
육각형과 용, 연꽃은 물 에너지의 상징
공포에서 용-연꽃-봉황의 중층적 구성
전등사와 정혜사 불단에 웃고 있는 용
용 입에 연꽃, 물고기로 물 기운 증폭

용 표현	조형 소재	상징성
1) 용면	꽃가지나 넝쿨	생명의 근원, 화마에 대한 벽사
2) 용틀임하는 용 전신	여의보주나 오색구름	궁극적 깨달음, 부처(왕), 청정국토 수호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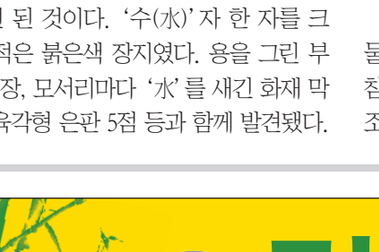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염불도 나이가 들면 힘이 들고 성대에 무리가 가지요!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5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불교인문학살롱

24 쇼펜하우어와 〈우파니샤드〉

▶ **홍혜랑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독어독문과에서 수학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에서 문학석사를 마치고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정시험 출제위원과 협회 이사를 지냈다. 30여년 동안 수필창작에 매진하면서, 철학가들과 함께하는 철수회(哲隨會, 철학가와 수필가의 만남)의 창립에 동참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상임이사, 우리문학기림회 회장을 역임했다. 수필문우회 운영위원이며 저서로는 에세이집 〈이판사판〉 〈자유의 두 얼굴〉 〈회심의 반전〉. 수필선집 〈문명인의 부적〉 〈운명이 손대지 못하는 시간들〉 등이 있다.



인도철학을 서구에 알린 선구적 철학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원묘지에는 생몰 연대도 없고, 묘비명(墓碑銘)도 없는 다소 야성적인 무덤 하나가 있다. 검은색 화강암 묘지석에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라는 이름만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내가 어디에 묻혀도 후세인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라고 장담한 철학가 쇼펜하우어(1788~1860)는 과연 그가 예언한 대로 흙 속에 묻힌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는 묘비명 보다는 자신의 저작들 속에서 기억되기를 바랐다. 독일의 근대 철학가 중에서 사후에 쇼펜하우어만큼 관심과 명성을 얻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던 외로운 철학가였다.

20세기 실존주의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1844~1900)에게서 시작됐다고 알려졌지만, 기실 니체의 탈이성주의 사상이 발아한 텃밭은 따로 있었다. 대학생 시절의 니체는 1865년 어느날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그가 태어나기 사반세기도 전에 출간된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기쁨의 충격에 빠진다. 철학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였다. 이미 고인이 된 쇼펜하우어에게 니체는 존경을 담아 '선구자 쇼펜하우어' 라는 에세이를 써서 헌정할 정도였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사상은 훗날 니체에 의해 '생철학' 이라는 실존철학의 장르를 탄생시켰고, 실존철학의 질풍노도는 20세기 지구촌 철학 100년을 뒤흔들었다.

〈우파니샤드〉 읽은 첫 서구 철학자

본래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어릴 적부터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아버지로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받지 못하고 11세에 함부르크 상업학교로 보내졌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라고 했던가. 아버지의 급서로 17세의 소년 아르투르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다. 상인으로서의 훈련을 중단하고 인문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우여곡절 끝에 1809년 괴팅겐대학교 의학부에 진학한다. 자연과학 과목들을 공부하던 중, 인간을 연구하려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생리학을 모르면 심리학 연구는 헛수고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우주적 단일성 '프시케' 를 경험하면서 그는 2년 후 베를린대학교로 옮겨 철학전공으로 마음을 굳힌다. 당시 베를린대학에는 저명한 철학자 피히테 교수가 있었다. 이내 피히테 교수의 관념론적 강의에 실망한 그가 청강한 과목들 중에는 철학 이외에도 광물학, 물리학, 식물학, 천문학, 지질학, 동물학, 인간의 뇌해부학 등 온갖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있었다. 우주를 향한 그의 심오한 탐구심은 놀라웠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쇼펜하우어가 나이 갓 서른에 펴낸 파격의 철학서다. 젊은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그때까지 유럽 정신을 짓누르고 있던 전통적인 이성주의와 형이상학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성이 숨겨오던 인간의 실존적 적나성(赤裸性)을 낱낱이 파헤친 이 책은 당시 헤겔, 피히테 등 관념주의 철학의 원로들에게 날린 도전장이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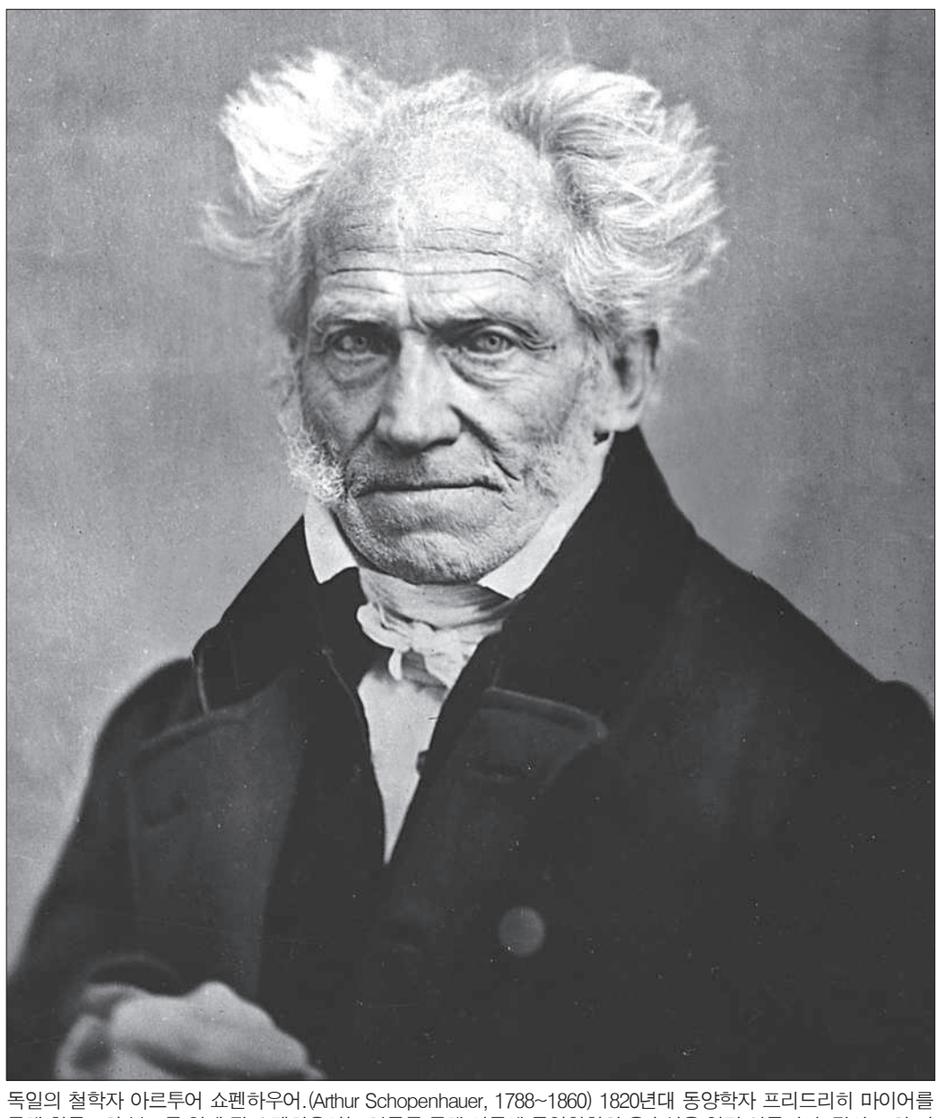
형이상학적 관념 대신 몸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 을 파고든 해체주의는 세인들에겐 낯설었고 철학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새내기 철학가의 진지한 인간탐구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저자가 제도권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한 번 펼쳐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데에는 기여한 셈이다. 책이 출간되던 다음해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대학 철학과의 객원강사로 부임했다. 그의 사상적 자기 확신은, 원로 주임교수 헤겔과 똑같은 시간대에 나란히 강의 시간을 고집할 만큼 의기충천했지만 결국 수강생이 오지 않아 그는 강사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10여 년 후 대학 캠퍼스를 영영 떠나고 말았다. 고독하고 괴팍한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7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로지 재야의 철학가로서 자신의 철학사상을 집대성하는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며 고행 수도자처럼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우파니샤드〉 접하고 인도철학 관심
플라톤, 칸트가 정립한 이원론 인식
'범아일여' 일원론 철학으로 통합해
"힘에의 의지, 자기 극복의 상승의지"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사상이 고대 인도의 정신세계에 닿아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로부터 인도에 관한 고대 문헌 〈우프네카트〉를 소개받고서부터였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되기 4년 전이었다. 〈우프네카트〉는 고대 인도의 철학서인 〈우파니샤드〉의 페르시아어 번역본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BC 428~348)과 근대 철학가 칸트(1724~1804)의 사상이 〈우파니샤드〉와 하나의 맥으로 꿰어져 있음을 간파한 최초의 서양 철학가는 쇼펜하우어였다. 플라톤과 칸트는 생전에 〈우파니샤드〉를 읽을 기회가 없었다. 〈우파니샤드〉가 처음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1802년에 이르러서였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서문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다. "〈우파니샤드〉, 플라톤, 칸트가 없었다면 나의 학문은 없었을 것이다."

〈우파니샤드〉는 알려진 대로 독립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방대한 문헌 〈베다〉의 일부분이다. 베다 시대의 사람들은 밖에 있는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숭배했지만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1820년대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 힌두교와 불교를 알게 된 쇼펜하우어는 연구를 통해 서구에 동양철학의 우수성을 알린 선구자다. 당시 그의 저술은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내면화의 명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깨달았다. 모든 신들의 배후에는 하나의 지고한 존재가 있으며, 만물의 근본 원리인 대우주의 본체 브라만과 소우주 개인의 본체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일원론' 이 〈우파니샤드〉의 철학이다.

梵我一如 우주론으로

세계를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이데아의 세계와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현상의 세계로 나누었던 플라톤의 이원론은 칸트의 '현상' 과 '사물 자체(Ding an sich)' 로 반복된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일 뿐, 현상 뒤의 사물 자체는 선험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 칸트의 인식론이다. 칸트의 계승자 쇼펜하우어는 '사물 자체' 의 자리에 인간의 '의지' 를 대치했다.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얼굴만 바꾼 칸트의 세련된 이원론이다.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 약동하는 의지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며 선험적으로 본래 있었던 진여(眞如)의 세계라는 것이다. 의지라는 근본조건은 모든 생명에게 공통이지만 각각의 환경과 지성의 차이에서 표상이 다를 뿐이다. 인간의 의지 자체는 궁극적으로 욕구 충족이라는 자기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지향하지 않는다. 삶으로 줄기차게 난입하는 생명체의 절대의지는 찰스다윈의 '생존투쟁' 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삶이 있는 곳에 의지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연구실에 은둔한 철학가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철학을 했다. 그에겐 일찍부터 상인의 훈련을 받던 세상 속의 체험이 있었고,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자연과학적 인간론' 의 뿌리가 있었다. 우파니샤드 현자들이 대우주의 본체와 소우주 인간의 본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불립문자 영성으로 깨달았다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그것이 발현하는 표상의 관계를, 숨 쉬는 인간의 몸속에서 직관한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다. 통일성의 본성과 통일성이 다원성으로 드러나는 근본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은 나 쇼펜하우어다. 인간은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그 힘과 하나이다."

범아일여의 〈우파니샤드〉 철학은 쇼펜하우어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경전이었다. "〈베다〉 한 페이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칸트 이후 철학자들의 저서 열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많다. 이 책은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었고 나의 죽음도 편안하게 해 줄 것이다."

플라톤, 칸트의 이원론은 인식에는 공로가 컸지만 그것뿐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들의 이원론을 우파니샤드의 일원론 철학에서 통합한다. 서양의 철학가 쇼펜하우어를 인도지성의 대변자라고 부르고, 그의 사상을 '서양의 옷을 입은 불교철학' 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허무주의의 극복인가, 완성인가

시대의 주류 사상에 밀려 헌책방에 유폐됐던 쇼펜하우어의 저서가 대학생 니체의 눈앞에 신세계처럼 펼쳐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사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역운(歷運)이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철학사상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대학강단을 떠난지 30여 년 후였고, 세상을 하직한지 5년 후였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의 부정적 그늘에 머물지 않았다. 역설적이지만 니체의 긍정철학 '힘에의 의지' 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에서 태어났다. 쇼펜하우어의 어두운 맹목적 의지가 니체의 긍정적 '힘에의 의지' 로 부활하는 철학사의 전환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힘에의 의지' 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처절한 극한의 방편이었다.

"존재하는 것은 숨 쉬는 것이다. 존재는 '되어가는 것' 이지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힘에의 의지는 보존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상승의지다."

상승은 매 순간 극대화를 꾀한다. 생성의 과정은 영원히 끝이 없으므로 힘의 극대점은 없다. 소유론적 욕망의지가 본성의 존재론적 '힘에의 의지' 로 역동하는 상승이다. 매 순간 힘에의 의지로 충만한 사람이 니체의 '초인' 일 터다.

삶이 맹목적 의지의 표상이라면, 삶은 태생적으로 어두움이다. 그래서 인간세상을 욕계(欲界)라고 부르는가. 쇼펜하우어를 허무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힘에의 의지' 에 매달린 니체는 우리에게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다. 둘 중의 하나다. 허무주의적 절망에 이르던가. 최고의 긍정으로 허무를 극복하던가.

〈유토피아〉의 저자 올더스 헉슬리가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모든 종교적 신앙의 원천이라고 했던 말을 음미하는 시점에 와있다. 우주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명상을 통해 욕망의지를 무화(無化)하고, 공(空), 무(無), 허(虛)라는 우주적 본체로 회귀할 때 허무는 극복이 아니라 완성될 수 있음인가. 허무를 완성하는 길만이 허무를 극복하는 길이라면, 〈우파니샤드〉에서 구원을 본 사람은 쇼펜하우어뿐이 아닐 터다.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을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오음이 허망함을 안다는 것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㊼ 오음의 생멸

〈원문〉 "아난아, 변화하는 이치가 머물지 아니하고 움쩍움쩍 은밀히 옮겨지며 손톱이 자라고 머리털이 길어지며 기운이 없어지고 얼굴이 주름져 밤낮으로 늙어 가지만 일찍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난아, 행음(行陰)이 네가 아니라면 어떻게 몸이 달라지며, 만약 반드시 너라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너의 행음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으니 이름하여 그윽하고 은밀한 네 번째 망상이니라. 또 너의 알차고 밝고 고요하여 동요치 않는 곳을 항상한 것이라 할진대 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약 진실로 알차고 참된 것이라 한다면 망령된 습기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일찍이 옛적에 한 기이한 물건을 보고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다가 뒤에 다시 보면 기억이 완연하여 잊어버리지 않나니 생각마다 훈습을 받은 것을 어찌 계산할 수 있겠는가?

아난아, 이 다섯 가지 받아 들이는 음이(五受陰)이 다섯 가지 망상(五妄想)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 오음이 원래 중첩하여 생겼으며, 생기는 것은 식을 인하여 있고, 멸하는 것은 색으로부터 제거되느니라. 이치로는 단박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소멸하거니와 사실에는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차제를 인하여 다하느니라."

〈강해〉 〈능엄경〉 10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음망상(五陰妄想)이다. 오음이 망상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음이 다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신비한 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미혹해지면 올바른 선정이 아니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의 본문은 행음과 식음에 대하여 말한 대목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오음이 소멸할 때는 색음부터 없어져 식음에 이르는데, 생겨날 때는 식음에서 시작하여 색음에 이른다는 생멸의 과정이 반대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오음이 변제(邊際)가 있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없어진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생길 때 식음(識陰)에서 시작하여 행음, 상음, 수음, 색음으로 생기며 깊은 선정을 닦아 오음이 소멸할 때는 색음부터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옷을 입고 벗을 때 입을 때는 속옷부터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겉옷부터 먼저 벗는다는 논리와 같은 말이다.

지난 옛적에 보고 들었던 것을 여러 해가 지나서도 기억이 나는 것을 행음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생각마다 훈습(熏習)되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진행되듯이 행음의 작용이라는 뜻이다. 물론 식을 설명할 때도 상속식(相續識)이라는 말이 있다. 〈기신론〉에도 나오는 이 말은 한 번 일어난 망념이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망념을 일으켜 단절되지 않는 식(識)의 성질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도 물론 행음이 관여하는 것이다.

선어록에도 많이 인용하는 〈능엄경〉 4구게(四句偈)라고 말하는 사구 송이 이어 설해졌다.

"理則頓悟 乘悟併銷 事非頓除 因次第盡" 이치로는 단박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면 그만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어서 차제를 인하여 다해진다는 것이다. 흔히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수행법을 말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으나 〈능엄경〉에서는 오음이 모두 허망한 줄 아는 것은 한꺼번에 아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면 아울러 소멸할 수 있지만 오음을 실제로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차례로 닦아서 다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선수행에 있어서도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문제를 두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두 견해가 있고, 구봉 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원제전집〉에는 7대 돈점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경전에 설해진 수행 방법은 돈오점수다. 물론 중국의 선종 가운데 임제종을 수립한 임제 의현(臨濟義玄:?~867)은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여 임제종풍의 기치를 삼았지만 간화선을 완성한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는 그의 어록인 〈서장(書狀)〉에서 능엄경 4구게를 여러 차례 인용 소개하기도 하였다.〈끝〉

〈반야불교연구원장〉

법념처관 기틀 갖추게 돼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㊼ 11~13번째 삼각형 그리기

한물건과 쿤달리니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을 느껴본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한물건을 중극으로 끌어올린다. 숨을 내쉬면서, 중극에서 황정과 명문을 함께 내려다본다. 좁게 형성된 삼각형의 내부 면을 지켜보면서 척추뼈의 감각과 척수 공간을 함께 느껴본다.

숨을 들이쉬면서 명문의 쿤달리니를 영대로 끌어올린다. 중극의 한물건과 영대의 쿤달리니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을 지켜본다. 그러면서 중극과 영대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간극을 주시한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과 간극의 형질을 비교해 본다. 똑같이 느껴지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 쿤달리니와 한물건을 함께 비춰준다.

쿤달리니의 열감이 누그러들면 한물건과 쿤달리니를 중황으로 끌어올린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척수 순화를 이룬다. 안 몸과 바깥 몸 사이에 간극이 세워지고 법념처관을 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추어진다.

열한 번째 경로는 중극, 영대, 중황 라인이다. 이 라인을 운용하면서 식무변처정의 초입에 들어간다. 수인을 짓는다. 중극, 영대, 중황을 연결시키고 삼각형을 세워준다. 중황에 각성을 두고 중극과 영대 기점을 내려다본다. 삼각형의 내부를 인식하면서 흉수 5번과 흉수 1번 사이의 척수 감각을 들여다본다.

중황의 한물건과 척수 감각을 서로 연결시킨다. 천천히 유동하는 척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경수 1번에서 시작된 척수의 요동이 흉수를 타고 요수로 내려가서 천수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척수의 요동에 장부가 반응하는 것을 함께 느껴본다. 척수 전체를 안 몸으로 삼고 중황 기점을 올려다본다. 머리뼈 순화가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는 식업들을 지켜보고 안 몸의 상태를 함께 주시한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두부(頭部)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열두 번째 경로는 중황, 미심, 백회 라인이다. 머리뼈 순화의 장애를 극복하고 전두엽 피질과 시각 경로를 제도한다. 수인을 짓는다. 중황의 한물건과 미심, 백회 경로를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삼각형의 내면 상태를 주시한다. 머리뼈 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춰본다. 머리뼈가 변형되면서 생겨나는 통증도 비춰보고 오관으로 빠져나가는 냉기도 지켜본다. 증상이 해소되면 백회와 미심을 이어주는 사선에 집중한다. 사선에 각성을 두고 시각(視覺)을 일치시킨다. 사선에서 미심과 중황 사이의 공간을 내려다본다. 텅 빈 공간감과 보는 식의 작용을 함께 인식한다. 전두엽피질이 활성화되고 시각 경로가 제도된다. 백회와 중황 경로에서는 무념주를 인식한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서 두정부의 상(像)과 이마부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열세 번째 경로는 중황, 백회, 옥침 라인이다. 이 라인을 운용해서 머리뼈 순화의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피질을 제도한다. 중황의 한물건을 주시하면서 수인을 짓는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숨을 들이쉰다. 백회와 중황 사이에 세워진 무념주를 인식한다. 중황에서 옥침으로 숨을 내쉰다. 옥침판의 자극을 인식한다. 옥침판으로 무심처를 삼는다. 백회, 중황, 옥침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삼각형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머리뼈 순화가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추어본다. 백회와 옥침을 연결하는 사선을 주시한다. 사선에 시각(視覺)을 일치시키고 무념주와 무심판을 함께 지켜본다. 시각피질이 활성화되고 보는 경로의 업식이 제도된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두정부의 상(像)과 뒤통수의 상(像)이 갖추어진다.〈끝〉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㊼ 성불

모양은 모양이 아니다

팔만사천법문이 하나로 돌아가는 안내서인데, 그 참뜻을 알지 못해 오온을 가지고 수없는 행위의 반복으로 거듭나고자 하겠지만, 그 행위가 오히려 본질을 방해하는 줄을 어찌 가늠하겠는가. 가만히 앉아 허공을 보고, 흐르는 물로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이 따분한 것 같지만, 다시 구해야 하는 것 없으니,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부처를 향하려는 마음 또한 부질없는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서둘러 돌아갈 곳을 잊고 보니, 때에 맞게 주어지는 것 이외에 따로 찾아야 할 것 없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니, 세상이 나를 굴복시키는 것도 없다. 방편의 법문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하여도, 어찌 그 하나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 그 하나는 언어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수많은 말들이 마지막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처음에는 하고자 함이 약이 되나, 나중에는 전쟁에서 패한 병사가 총칼을 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처지와 같은 병이 되지만, 그 자신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말 어디에도 없지만, 자신을 중생이라 자처하고 부처를 찾으니, 없는 부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아상(我相)이라는 상이 있어 아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어 중생이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곳을 나오라는 말이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말로 들리니, 말하는 이가 황망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질없다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과거에 지어놓은 기억의 잔재들이니, 될 수 있으면 세상의 일에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지혜가 될 것이다. 여기에 혀를 대어 변명하게 되면, 아직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꼴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스스로의 소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문자 속에 있는 이치를 아는 것은 그대 스스로가 아니고 오온일 뿐이고, 말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이가 바로 그대라는 것을 안다면, 문자 속에 있는 이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문자 속에 있는 이치를 실천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없이 실천하는 진리는 이치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일체 중생과 제불 여래께서는 모두 본래 청정한 자성 속에 머물러 있어서 증감도 없고 생멸도 깨끗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법에 상주하네. 그러므로 전후에 한 말은 모두가 교화의 방편이 아님이 없으며 결코 자성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네."

처음에는 상상으로 수행을 했더라도 마지막은 실천으로 끝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의 달콤한 꿀맛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이에게도 그 꿀맛을 권하겠지만, 그 자신부터 완전히 감응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이들을 감응시킬 수 있겠는가. 실천에는 꿀맛은 없더라도 달리해야 하는 말들이 필요 없으니, 보는 이도 들을 것 없이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가 따로 말할 것 없이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안다면, 팔만사천법문이 따로 필요치 않음을 안다. 처음의 꿀맛이 잠시는 달콤하여 있는 듯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서로가 허전함을 느끼고 다시 달콤함을 찾게 되니, 달콤한 상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스스로가 세상에 있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기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하여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느 때에 문득 일어나고 사라지는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때, 스스로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진다. 그때는 함박웃음으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꿈속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해소하고, 알게 하고, 속지 않게 함으로써 서로는 둘이 아니게 된다.

완전한 소통을 이루면, '나' 라고 하는 모양이 따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밖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더 이상 사량분별(思量分別)이 나타날 수 없다.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양으로 살지만, 그때의 모양에서 스스로의 모양이 아님을 알았으니, 다양한 모양들이 항상 보여주는 그 모양의 메시지를, '모양이 아닌' 메시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임을 바르게 안다. 모양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여, 청정한 그 모습을 왜곡시키지만 않으면, 모양이 모양 아님을 아는, 그 온전한 앎이 주어진다. 〈끝〉

〈(사)여시아문 선원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464호 | 17 | 전면광고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법사님 일반인 무속인 인연맺습니다.
- 사찰, 굿당 등 활용 가능 문의



010-4180-1788

사찰(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약 50여평
- 법당 : 30 평
- 요사채 : 30 평(종무소1층)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이며, 절 찾는 스님분들 와보시면 실망하지 않을것입니다.
- 법당 시설 완벽, 상태 최상

010-3190-81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삼량리 155(자비정사)
- 대지 : 약 1,200평
- 법당 30평, 삼신각 3평, 요사채 30평(방3개, 화장실2개)
- 난방,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 7억 5천

010-8545-0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10만원

밀양으로 확장 관련 현 가람 임대 놓습니다. 암 말기 환자 치료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010-3132-9666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 다가구주택 6가구 포함. 3층 건물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 매매가 : 3억8천만원

몸만 오셔도 됩니다.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
- 빈 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 찰 안 내

- 위치 : 통영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 1천만원

010-2807-0509

G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무형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포교원할 분

- 위치 : 서울 하곡동 시장역 2층
- 부지 : 30평 남향
- 가액 : 절충가능

결혼정보

결혼할분은
서울 명동결혼에서

010-5381-141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㉒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주인공은 바로 '나'

계묘년(癸卯年)의 끝 12월이다. 시간의 빠름과 세월의 흐름이 바람 같다고나 할까? 아님 구름 같다고나 할까? 올 한 해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글로 지나간 시간과 지금의 시간 그리고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 이었을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수처작주 입처개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지금 있는 그곳이 진리의 자리라는 뜻이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수처(隨處)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라는 뜻일 것이다.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행복한 세상일 것이다. 우리는 늘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 속에 분명한 것은 나는 나에게서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주인은 바로 '나' 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주인도 역시 '나' 이다.

그러므로 '나' 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주인공답게 초연하며, 온화하며, 활기차게, 마음을 맑게, 담담하며 침착하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아름다운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계묘년(癸卯年)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나' 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게는 '나' 라는 주인공이 당당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당당함도 불법을 전하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무 석가모니불. 〈끝〉

〈서예가〉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⑥ 상실로 인한 우울증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한다

한 수행자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청정한 수행이 즐겁지 않다. 약에 취한 듯 사방은 희미하게 보이고 나태와 무감각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괴로워했다. 부처님은 그에게 "탐욕과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몸은 불안정하다. 지금 너는 괴로움과 슬픔이 일어나느냐?"라고 묻는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 나오는 부처님의 사촌 팃사(Tissa)에 대한 에피소드다. 팃사는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무기력함과 나태함 속에서 괴로워했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법을 설하며 "팃사야, 기운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며 자비를 멈추지 않았다.

책에서 묘사된 팃사의 슬픔과 무감각은 이 시대 우울증과 많이 닮았다.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는 하루 대부분을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며 슬픔과 공허함 그리고 절망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주변인들도 그들의 얼굴이 곧 울 것 같은 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몸무게가 갑자기 늘거나 줄기도 하고 불면 혹은 과다수면 증상이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심하게 느끼며 사고력과 집중력이 감소한다. 자살을 고민하거나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세워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우울증을 정신병리적 증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원인은 유전도 포함되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 부족이 문제가 되어 우울증약(SSRI · SNRI · TCA · NDRI)을 처방받기도 한다. 그 외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성격적 원인도 있다.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우울증에 대해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프로이드는 사랑하는 대상(직업이든 사람 혹은 건강 등 애착대상)을 잃으면 사람들은 먼저 슬퍼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라져버린 대상에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사라졌기에 자신에게 그 분노를 돌린다고 이해했다.

우울증 치료 효과를 검증한 아론 벡(Aron Beck)의 인지치료에서는 "부정적인 인지(사고)가 우울증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애착 이론을 창시한 존 볼비(John Bowlby)는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우울증을 '학습된 무력감' 이라고 했다. 학습된 무력감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적으로 오면 더 이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회피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이론으로 설명한 우울증은 간단하지만 실제 우울증의 파괴력은 삶 자체를 집어삼킨다. 〈한낮의 우울〉의 저자 앤드루 솔로몬은 실제로 중증 우울증을 심하게 겪은 심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다. 그는 우울증에 대해 "우울증은 전쟁, 암, 에이즈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을 빼앗는다. 우울증은 알코올 중독에서 심장질환에 이르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며 정체를 감추고 그런 질병들 뒤에 숨어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우울증은 지상에서 제1의 사망 원인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우울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원인은 상실이다.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인가를 잃고 나면 슬퍼하고 애통해한다. 이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으로 우울과는 다르다. 슬픔과 우울은 구분된다. 슬픔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며 수용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욕구와 관심사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실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해소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우울이 나타난다.

내가 만난 우울증을 가진 내담자도 상실이 주 원인이었다. 여든 살이 넘어 상담실을 찾아온 할머니 옥분(가명)님은 겨우 걸어서 상담실에 들어왔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걷는 것이 힘들어 보였던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속마음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옥분님은 남편의 외도 속에서도 가정을 일구고 많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울분이라며 외도했던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이 아쉬움뿐이라는 듯 울음을 삼켰다.

분명 옥분님의 내면에는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보람과 어머니의 역할을 해낸 강인한 의지도 있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옥분님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마주할 죽음이라는 과제에서 느끼는 실존적 문제다.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결핍을 느끼는 부분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서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죽음과 건강, 외로움 등 실존이 주는 상실은 인간에게 거대한 한계이며, 실존적 상실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답은 없다.

건강 잃고 우울함으로 나약해진 팃사
無常 이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팃사가 경험한 상실도 자신이 믿었던 '건강' 이다. 부처님의 사촌인 팃사는 오만한 행동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사촌이라 자신은 그 누구도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고, 두려울 것도 충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돌아다녔다. 또 늦은 나이에 출가해 어린 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인사를 시키는 등 승가에 혼란을 주었던 수행자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자만과 부처님의 위상을 믿고 덩달아 자신도 마치 부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 안하무인의 모습이었다.

건강을 잃은 팃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오만할 수 있었던 모든 조건들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다. 더 이상 잘난 척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느끼며 무기력감에 마치 자신의 삶이 끝난 것처럼 슬픔과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는 수행에 회의를 느끼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에 부처님은 팃사에게 "몸은 영원하냐, 무상(無常)하냐?"고 질문한다. "무상하다"고 답하는 팃사에게 부처님은 이어 "감각과 표상과 의지와 의식은 영원하냐, 무상하냐?"고 재차 묻는다. 팃사가 무상하다고 답하자 부처님은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다시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침을 전한다. 무상은 실존의 상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화한다는 진리는 상실을 넘어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일일시호일

혈액암 치료비·약값 눈덩이에
생계도 막막

어머니 심장병 해결하고자 한국 온 미얀마 이주민 테민앙씨
림프종 혈액암에 1년 넘게 생사기로…수술비만 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㉔ AI 시대, 명상 선진국으로 가는 길



▶한줄 요약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 5~10년 내 우리나라는 명상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K-명상, 넘어야 할 산 많다

지난해 12월에 쓴 연재 제목은 'AI 시대의 명상' 이었다. 당시 원고에서 세상의 기술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의 국가경쟁력은 기술과 접목해야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명상 콘텐츠 측면에서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기술만 접목하면 전 세계 K-Meditation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3년 12월 명상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산업적 측면에서 명상 경쟁력이 더 약화된 듯하다. 특히 챗GPT로 촉발된 AI 솔루션의 일반화는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상 영역에서도 큰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명상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가야할 방향성을 독자들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2022년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이 직면한 가장 큰 건강문제로 1위는 코로나19 47%, 2위는 멘탈 헬스 36%, 3위는 암 34%, 4위 스트레스 25%가 꼽혔다. 중복응답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하면 멘탈헬스와 스트레스가 61%로 마음의 문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떠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7년까지 100만 명 정신상담 지원으로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 을 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때 과학기반의 마음챙김 명상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마음챙김 명상은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상황이 아니다. 당연히 명상서비스를 통한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4년에도 명상산업 전망은 매우 밝다. 글로벌 명상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빠른 생활 속도와 높은 스트레스를 특징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압박감과 불안을 경험하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명상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 연구로 검증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명상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급증했다. 특히 마음챙김과 관련한 논문은 한 해 약 3000편정도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상이 뇌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의 대표적인 과학적 효과는 화와 분노 조절, 우울증 대처, 걱정과 불안 감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체중감소, 일상의 스트레스 감소, 편안하고 빠른 수면, 집중력 증가, 경청태도 개선, 즐거운 성생활, 혈압 조절, 단호함 증가, 깊이 있는 영적 삶, 끈질긴 목표 추구, 더 바람직한 리더 등 다양하다. 과학적 기반이 명상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다. 스마트폰 앱, 온라인 플랫폼, AI, VR 등의 기술 발전은 명상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유형의 명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필요와 수준에 맞춰 맞춤형 명상 경험도 제공한다. 명상앱이 출시되면 전 세계 국가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필자가 서비스 하고 있는 하루명상앱도 현재 175개국에 출시되었다.

넷째, 웰니스와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명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상은 마음과 몸의 연결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조직에서의 명상 프로그램 도입 확산이다. 많은 기업과 조직이 직원의 복지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원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삼성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효과 검증 · 디지털 기술 접목에
2024년 역시 명상산업 전망 밝아
한국의 전 세계시장 공략은 미비
정부 차원 지원 · 보급 선결과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명상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명상 전통 그리고 디지털 기반 등과 비교했을 때 명상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해 보인다. 지난 55년 동안 마음챙김 연구를 국가별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1~2% 수준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영국이 10% 이상을 기여했고, 캐나다, 호주, 독일 그리고 중국이 5~10%다. 중국보다 기여도가 낮다는 점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다. 그만큼 명상관련 과학적 연구가 많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니얼 골먼과 리처드 데이비슨이 쓴 〈명상하는 뇌〉라는 책에서 구분한 명상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저자들은 명상 수준을 5개로 구분했다. 제1수준은 종교에 기반한 순수한 형태의 명상 수행법으로 달라이 라마, 숭산 스님, 고엔카, 마티유 리카드 등과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제1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선불교는 물론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한 수행자가 많고 깊이 있는 수행 전통이 있다.

제2수준은 잭 콘필드, 래리 로젠버그, 조셉 골드스타인, 새론 샐즈버그 등과 같이 동양의 불교 전통을 서구인들의 언어, 문화, 정서 등에 맞게 각색한 형태로 보급하는 단계다. 제2수준에서도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2수준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재가 수행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다.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명상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법을 전하는 전문수행자들이 많고 경쟁력도 높다.

제3수준은 MBSR(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MSC(마음챙김-자기연민 프로그램), MBCT(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와 같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심리치료 형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확산하는 단계다. 제3수준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3수준은 종교색을 벗어버리고 과학적 검증을 거친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단계다. 우리나라는 오랜 명상전통을 가지고는 있지만 종교를 넘어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화 한 사례는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미산스님이 개발한 HST(하트스마일명상)이 유일하지 않을까 한다. 서구와 비교하여 가장 뒤떨어진 영역이다.

제4수준은 엄격한 과학적 검증은 거치지 않았지만 명상앱, 기업명상, 학교명상 등으로 널리 확산되는 단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나 학교에서 명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추세이나 아직은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는 아니다. 제4수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3수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수준은 아직 미완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는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과 변형이 이루어진 형태로 AI 명상앱 등을 들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I와 명상은 별로 관계가 없는 듯 보였지만 챗GPT가 고도화되면서 조만간 AI 명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제1수준과 제2수준에서 경쟁력이 높은 반면 제3수준에선 매우 낮고 제4수준에서는 이제 막 활성화되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 5~10년 내 우리나라는 명상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아직 미완의 단계인 제5수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명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우선적인 과제는 정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명상 및 마음챙김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및 개발 자금 지원, 규제 완화, 그리고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명상 프로그램을 공공 보건 시스템과 학교 교육 과정에 통합하여 국민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IT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명상 산업에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명상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명상 앱과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AI, VR, AR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을 통한 사용자 경험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제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 국제적인 연구, 명상 이벤트, 컨퍼런스 참가, 그리고 해외 명상 산업과의 파트너십 형상 등의 활동이 포함할 수 있다. K-Culture와 연계한 K-Meditation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명상관련 교육 콘텐츠 및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대학과 전문 교육 기관에서 명상 및 마음챙김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상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대행 스님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여여하게 살고 싶어요

질문 저는 생각이 많고 분별심이 많아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여여하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참선도 해 보고 경전 독송도 해 보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이들에게 채찍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래서 사대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똥 누러 갈 때도 '내가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그냥 싸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이니라."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까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저어서 강을 건너야지." 이러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면경을 깨끗이 닦아서 먼지 앉지 않게 해야겠다." 이러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정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그게 다.

그대로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둥글려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좋은 입력이 됐으니 나오는 게 자동적으로 좋은 일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입력돼서 그렇게 한 대로 나오는 거죠.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 이렇게 말들만 하시지 마세요.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로, 현실의 싹으로 나서 지금 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과거의 씨를 찾습니까? 현실에 내가 안고 있는 것이 그대로 과거의 씨도 되고 미래의 씨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찾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수행을 해 나올 때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리따웁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구렁이라면 모습이 구렁이인들 어떠리.' 즉 말하자면 내 어머니가 못 배우고 못났다고 해서 남의 잘나고 잘 배운 어머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죠? 잘났든 못났든 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따라가다가는 허방을 짚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거기까지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불바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력은 누구나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전력이다, 다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딜 믿습니까? 나로부터인데.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상업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노동을 하든지 뱃사공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여간에, 못났든 잘났든 모두 자기가 근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든 높든 다 높으니라. 비유를 하자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농사꾼이 아주 으뜸이니라. 물에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니라. 과학자한테 가면 과학자가 으뜸이니라, 노동자한테 가면 노동자가 으뜸이니라." 이래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하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높으니까. 개미도, 개미 소굴에서는 개미가 높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려면 못 하니까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천지 모든 것이, 일체 식물이나 과일이나 모두 제가끔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한데 섞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 먹으면 요거 맛 다르고 저거 먹으면 저거 맛 다르고 다 다르지마는 다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이리로 쏠리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 쏠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기 때문에 들으면 듣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요. 누가 병이 났는데 "이런 병 못 고쳐." 이러면 아주 입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죠. 중심이 서지 않아서 '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나 할 탓이지.'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약하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집에 주인이 있다면 딱 버티고, 어느 게 들어와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리드해서 끌고 나가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는 대로 곧이듣고 '아이구,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 자식들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태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부 듣고 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사람의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두뇌로 올라가서 하달이 되거든요. 그럼 입력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자동적인 입력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얘깁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서, 잘해서 넣어 가지고 나오지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동적인 숙명통 컴퓨터에는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을 항상 건실하고 건전하게 갖고, 인연에 따라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모여서 즐거웁게 놀다가 즐거웁게 헤어지는 거니까요. 식구들하고라도 그렇고 남들하고라도 그렇고, 모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산다면 서로 이것이 인과가 되고, 즉 말하자면 원수도 되고 유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낭패가 되는 거죠. 죽고 또 죽어도 다시 또 결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걸 제자리에다 되놓고 돌아가는 동시에 바로 나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물리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자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비! 누구 원망도 안 해지고, 악을 쓰고 누구를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운 생각, 원망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악을 쓰게끔 되죠. 그러면 벌써 거기 인과가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이 모두가 이러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되고자 해서 지금 이 공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겁 광년을 나를 이끌어 가지고 온 나의 장본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죽어도 살아도 거기 놓으세요. 모든 게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꼭지 없는 꼭지가 달려서 태양계에 매달려서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 마음의 자력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이 우주 전체를 한데 합쳐도 합친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합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왜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믿는다면, 진정코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는대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모든 것에 아랑곳없어요. 그렇게만

☞ 22면으로 계속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죽는대도 싱긋이 웃을 수 있다

☞ 21면에서 계속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열쇠를 가질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여래장이 되겠죠. 그런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가족 부양 능력 부족에 자책감이…

질문 요즘 경제가 힘들어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들은 학비 마련한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한다고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족들 부양을 제대로 못 한다는 자책감이 들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여러분은 때로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나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아귀나 모든 미생물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왜 한탄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좀, 지혜가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좀 낫게 지내고, 폭이 좁고 그릇이 작으면 아주 피곤하게 살고 이것뿐이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식구들이 다 부황이 나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 나가서 '내가 죄를 걸머지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곤 그냥 훔쳐 왔어요. 훔쳐 왔는데 그게 이 보이는 데서는 큰 죄라고 데려가서 가두겠죠.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야, 참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그거라도 훔쳐서 먹여 살렸으니 너 참 장하다.' 외려 이래 준다구요. 꽉 막혀서 도대체 오글락노글락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둑질을 정말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어떤 사찰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스승이 지쳐서 아주 죽게 됐어요. 죽물이라도 마시면 토해 버리고 영 일어나질 못했죠.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막내 제자가 호미하고 소쿠리를 들고선 나가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그냥 어디 좀 갔다 올 거야."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렁이를 그냥, 예전엔 지렁이가 많았죠, 아주. 이만큼씩 한 지렁이를 골라서 소쿠리에다 담아서 씻어선 소금을 넣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산에다가 솥을 걸어 놓고선 폭 다려서 한 솥을 해서 그냥 물에다 담가 놓고는 갖다 드리는 거죠, 데워서. 그 스승이 한 솥을 다 잡숫고 나더니만 "아휴, 그게 뭔지 난 이제 살았다." 이러고 일어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형들이 "너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생을 했으니 넌 무슨 죄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하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죄가 있다면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렸지 죄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부모가 죽게 돼서 살렸는데 뭐가 죄겠느냐고, 양쪽을 다 살렸지 않느냐고 그러더래요. 양쪽을 다 살렸다!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살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렸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지렁이가 우리 같은 스님네들한테 어떻게 공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스님들을 만나서 자기 몸을 공양을 바쳐서 진화돼서 탄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기 전에 벌써 진화는 됐다 이거야. "그랬으니 그 수없는 지렁이를 살렸고 우리 스님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생하지 말라고만 그러면 축생들이나 아귀나 이런 것들이 몇천 년을 기다린들 어떻게 스님 입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 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얘기죠.

> 수억겁 광년을 나를 이끌어온 나의 장본인, 나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 잘되는 것도 안되든 것도, 죽어도 살아도 거기 놓으세요.
> 모든 것이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마음은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입니다. 너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체를 못 하고,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고 뒤죽박죽이 되죠. 그런데 뒤죽박죽하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라. 진짜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내가 파악하고 건너뛰어라 이거거든. 물을 건너뛸 때에도 내 다리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서 건너뛰어야지, 개천은 넓은데 내 다리는 거기 반도 안 가면서 건너뛰다간 물에 빠져 죽죠. 그렇게 번연히 알면서도 건너뛰다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를 어떡합니까? 부처님인들 어떡합니까, 그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생긴 게 참 고맙구요.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잘살든 못살든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공부라도 하게끔 인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또 우리가 수없이 돌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러는 까닭에…, 돈 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고 먹는 거 걱정도 없고, 돈 쓸 때는 그냥 척척 줘서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기른 아이가 나가서 잘 이끌고 살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 보고 배도 고파 보고 망치질도 해 보고, 그 아픔을 겪어 본 사람이라야 그 부하를 다 이끌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배고픈 걸 몰라요. 그것까지 생각 못 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체 다 그런 거를,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이 그냥 사고가 나서 죽었다, 내 자식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이, 하등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 도리를 웬만큼 아신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되 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습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 뛰지 않느냐고 자기를 검증해 볼 때, 딴 사람 죽었다고 한 거나 자기 자식 죽었다고 한 거나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한 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면 됐어요. 다른 건 다 착을 떼어도 자식 착은 떼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 착을 떼지 못하는 걸 진짜로 떼게 한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입산을 하러 오니까 부처님이 "너 권속과 재물을 다 버리고 왔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다 버리고 왔습니다." 했는데도 "권속을 짊어지고 와 놓고 다 버리고 왔다고 하느냐. 짊어진 것을 다 버리고 오너라." 이러시더라는 거죠. 마음속에 잔뜩 넣고 왔는데 그게 뭐가 놓고 온 거야? 그리고 재물은 집에다가 다 그냥 놓고 식구들 다 살게 해 놓고선 왔거든. 그러니까 "재물은 다 갖다가 집에 식구들 수대로 다 안겨 놓고 왔는데 무슨 그걸 다 버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재산 나누어 준 거를 다 그냥 불에 태우려고 하고 또 패물은 다 물속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얘야,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러더라는 거지. 하하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버리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니라."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아프더라도…, 이게 참 묘한 이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 죽을 거, 허허허,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사도 벗어납니다.

얼마 전 여객선을 탔는데

질문 얼마 전 여객선을 탔는데 배가 풍랑에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순간 침몰사고가 나는 줄 알고 심한 공포에 떨면서 별생각이 다 들었지만 주인공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배는 도착하였지만 주인공에 대한 제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이런 침몰 사고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사고들은 어떤 인연으로 오는 것인지요.

답변 내가 가끔 그런 소릴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될 것을…." 하고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소용돌이치는 물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그냥 물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럼 가라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도 살아 있는 저 용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내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그 소용돌이의 파도는 없어질 거란 말이죠.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럼으로써 그 생명들을 다 앗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물이 둘이 아니라면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거든요.

또 우리가 미리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마음을 내 주면 될 거를, 미리 그럴 줄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미리 그럴 줄 모르죠, 모두.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도둑이 든다든가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아주 안 일어나게끔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진을 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에, 인간의 이 세포가 법계거든요. 이 법계의 생명들은 다 나고 들면서 그 레이더망처럼 그렇게 대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쁜 거는 안 되고 좋은 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미리미리 영리하게 대치할 수 있는 마음으로써 해 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아, 어느 때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더니 안 그러더라.'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럼 그게 체험이거든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일분일초도, 또 아주 조그마한 것도, 티끌만 한 것도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어요. 그러니깐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자기로부터 해결해서 맑은 걸로 쓰는 겁니다. 내가 맑은 거라는 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애고, 뭐, 아픈 거, 유전성, 영계성 이런 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앞에 자꾸 닥치니깐 말입니다. 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자꾸 빗나가게 만들어서, 눈이 컴컴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등등 가져오게 만들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놓고 다시 밝게 마음을 바꿔 놓음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진탕 눈이 컴컴해서 막 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야 법이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평등 자체가 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마음을 내지 않으면 부요, 마음은 냈다 하면 자예요. 그런데 마음을 내지 않으면 '자(子)'가 '부(父)'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하나가 돼서, 하나로만이 돌아가지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본 정신계, 정신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거고,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죽거릴 수 있고, 육체가 움죽거리기 때문에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이렇게 생길 거 같다 그러면 '그렇게 안 생기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서 그냥 믿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놓고 말아 버리는 거지, 믿으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면 맡겨 놓고도 알쏭달쏭 알쏭달쏭 하니까 이것이 서류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결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문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거죽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바로, 안 된다고 애원하고 그러지만,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누구 한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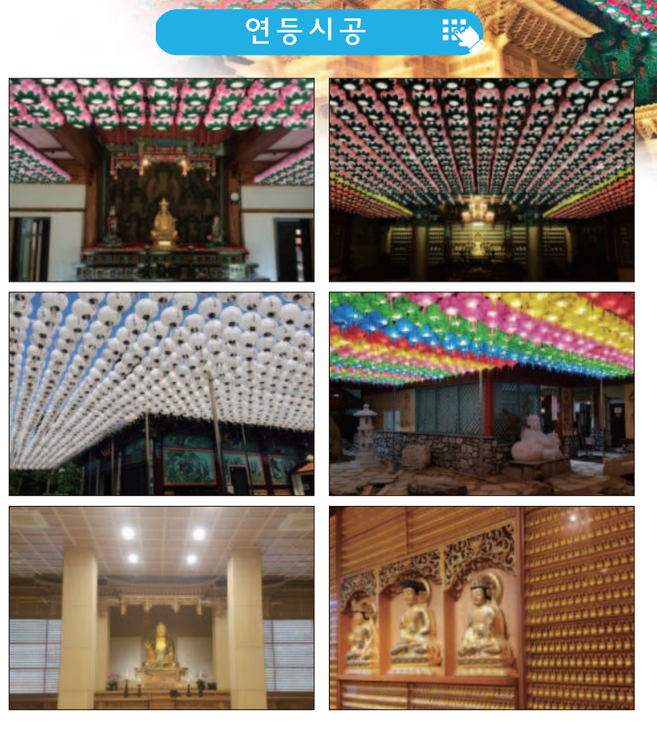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현불논단

전법·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지구촌 곳곳서 아픔과 비탄이 넘쳐나
작금의 참상들 인간의 시간을 파괴해

삶은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항해의 나침판은 지혜, 견인력은 자비

올해 한국불교의 긍정적인 면은 '전법'
불교는 붓다의 '전도선언'서 비롯됐다
전도선언, 중생에 대한 자비를 기반해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해를 넘기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아픔과 비탄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의 절규다. 해를 보낼 때면 새삼 '시간' 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학책, 철학책 등 다양한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 보나 항상 오리무중의 늪에 빠진다. 지구별의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삶의 틀로 삼아 사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한 것 같다. 태양계에 사는 인간은 지구별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일 년이라 하고, 스스로 한 번 돌면 하루라고 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물에 사는 또는 땅속에 사는 생명체의 시간 단위가 있다면 무엇일까. 시간은 원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결국 시간의 비밀은 모든 존재의 비밀인 것 같다. 〈금강경〉의 흉내를 내보면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이름이 시간일 뿐"인가.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대승불교에서 제기된 진속이제(眞俗二諦)가 새삼 다가온다. 진제는 궁극적 진리이고, 반면 세속제는 상대적 진리로써, 인간들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속제는 하화중생과 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 시간은 인간 삶의 속제이고 진제의 방편이고 결국 그 둘은 하나로 융합될 것이다. 시간은 결코 오리무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항해해야 할 바다이다. 인간이 시간이라는 방편을 만든 것은 '저 언덕' 에 가겠다는 지혜와 의지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런데 이를 어쩌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바다에서 난파당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올해는 유난히 지구별에 재난이 많았다. 종족과 이념의 우상에 빠져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모습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다. 중동의 '가자' 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은 인간이 얼마나 바보같은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어리석은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인 지구별 자체 자체까지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 한국사회에도 갈등과 미움이 넘쳐 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저 언덕' 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하고, 배에 탄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배를 모는 견인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여실하게 나타난다. 항해의 나침판은 붓다가 제시한 지혜이고, 배를 모는 견인력이 바로 자비이다.

한국불교의 올해를 뒤집어 보면 긍정적인 면이 바로 '전법' 의 강조이고 실천이다. 한국불교의 생명줄로 전법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불교는 '깨달음' 이라는 화두로 자신을 키워 왔다고 볼 수 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불교가 존재하는 것은 붓다의 깨달음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붓다의 '전도선언' 에서 출발한 것이다. 붓다의 전도선언은 바로 중생에 대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이 새롭게 다가온다. 날숨과 들숨의 사이가 바로 시간이고, 시간은 그만큼 절박하다. 산다는 것은 백척간두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전법의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자비의 숲이 울창하기를 염원한다. '저 언덕' 은 지고의 행복 터이다. 〈자비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社 說

내년에도 '부처님 법 전합시다'

올해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단 한 개의 키워드는 '전법' 이다. 그 시작은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비롯됐다. 43일간 1167㎞ 7대 성지를 도보로 순례한 사부대중의 여정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실감하고 전번을 통한 중흥의 원력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를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로 살아갑시다."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남긴 회향사는 한국불교에 전법 활성화의 트리거가 됐다. 자승 대종사가 제시한 원력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대학생 전법' 이라는 구체적 실천 과제로 이어졌다.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함으로서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통해서는 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해 대학생 전법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소신공양으로 격외의 가르침을 전한 자승 대종사의 유지는 이제는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화두가 됐다.

(사)상월결사도 1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에 원명 스님을 선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며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대학생 전법' 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관을 변경해 사무총장 체제를 만든 것도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대학교 불교동아리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전법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불교는 호감도 1등'에 만족할 건가

매년 연말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종교인식조사들을 발표하곤 한다.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항목이 종교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다. 다행히 불교는 항상 호감도 순위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다.

이는 템플스테이와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으로 대중들이 불교를 문화로써 향유하며 불교에 호감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반대로 살피면 대중들은 불교를 문화적 향유할 뿐 신앙으로써 불교를 접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호감도 1위' 라는 포장을 걷어내면,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 조짐들은 확인된다. 12월 6·13일 공개된 한국리서치의 종교인식조사에서도 불교는 호감도 1위 종교였지만, 내실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희박한 정체성이다. "불교 신행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자는 27%에 머물렀다. 개신교인 중 70%가 자신의 신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2013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70%가 수행·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4년 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신앙생활 만족도 항목에서 불교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10년 전 조계종이 조사한 결과와 현재의 통계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호감도 지수가 높은 건 불교의 강점이 분명하지만, 호감도 높은 사람이 곧 잠정적 불자라는 환상에 취해서도 안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다녀가지만, 불자가 반등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불교에 대한 허들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핵심신도를 어떻게 양성할지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새해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영원한 하루

2023년이 저물어 간다. 사람들은 한 해가 덧없이 흘러갔다고 회한에 빠지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내년에도 농부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상인은 가게에 나가 장사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당나라 때 목주 도명(睦州 道明 780~877) 선사는 젊은 운문(雲門)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올 때마다 "이르고 일러라"라고 소리치며, 대답을 못하는 운문을 한 손으로 밀어버리고 토굴로 들어갔다. 운문 스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목주 선사의 토굴 안으로 들어가리라 사생결단하고 다시 그를 찾아갔다. 이번에도 선사는 "이르고 일러라"라고 소리 질렀고, 운문은 대답을 못해 우물쭈물했지만 자신을 밀어내는 그의 팔을 붙잡고 힘을 다해 한 쪽 발을 사립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문이 닫혀 다리가 부러지면서 "아야"라고 소리쳤는데, 자신이 지른 소리에 그만 진리의 눈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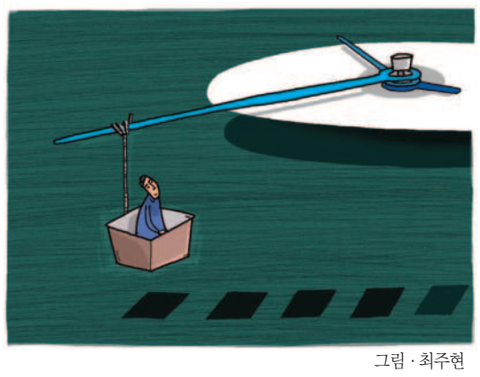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목주 스님은 네가 부처인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겠느냐는 질책이었을 것이다. 한 해 두 해 세월만 보내면서 언제까지 죄인처럼 목에 철가(鐵枷)를 두르고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같은 소리를 하며 허수아비처럼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목주 스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뜻깊은 법어가 아닌가.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때 시(時)와 사이 간(間)이 합쳐서 된 것이다. 끊어진 것이 시간이요. 이 끊어진 시간을 사는 것이 참 인생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과 내일은 끊어져야 하고, 올해와 내년은 끊어져야 한다. 오늘은 오늘의 나고, 내일은 내일의 나다.

오늘도 하루이고, 내일도 하루라면, 그것은 계속되는 하루이고, 묵은 하루이다. 죽은 하루이지 산 하루가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죽은 하루를 백 년을 살고, 천 년을 살아도 그것은 죽은 하루의 연속이다. 시간의 축적이 영원이 아니다. 끊어진 시간만이 참 시간이고, 산 시간이다. 끊어진 오늘이 새 오늘이고, 끊어진 내일이 새 오늘이다. 끊어진 오늘이 영원한 하루이다.

지나간 한 해를 후회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다.

〈작가〉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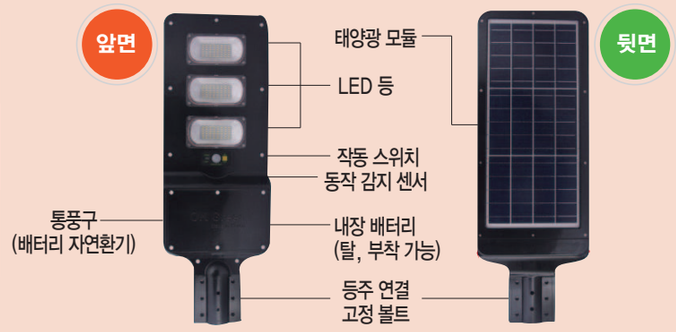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제품 세부 소개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하연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 동 참 금 문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연길+백두산 천지+돈화+온천욕
■ 동 참 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화/금/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문의

지상 무릉도원 세계자연유산 장가계

■ 주요일정 장가계+원가계+천문산 ■ 동참금 문의



벚꽃이 휘날릴 때, 일본



■ 지역별 상품
– 오사카/교토/나라 4일
– 도쿄/가마쿠라 4일
–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다시 열린 황금빛 불탑의 향연 미얀마 양곤 5일 (금/일 출발가능)



■ 주요일정
– 세계 불교 성지 황금빛 쉐다곤 파고다
–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까바에 파고다 친견법회
■ 동 참 금 문의

인도 성지순례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